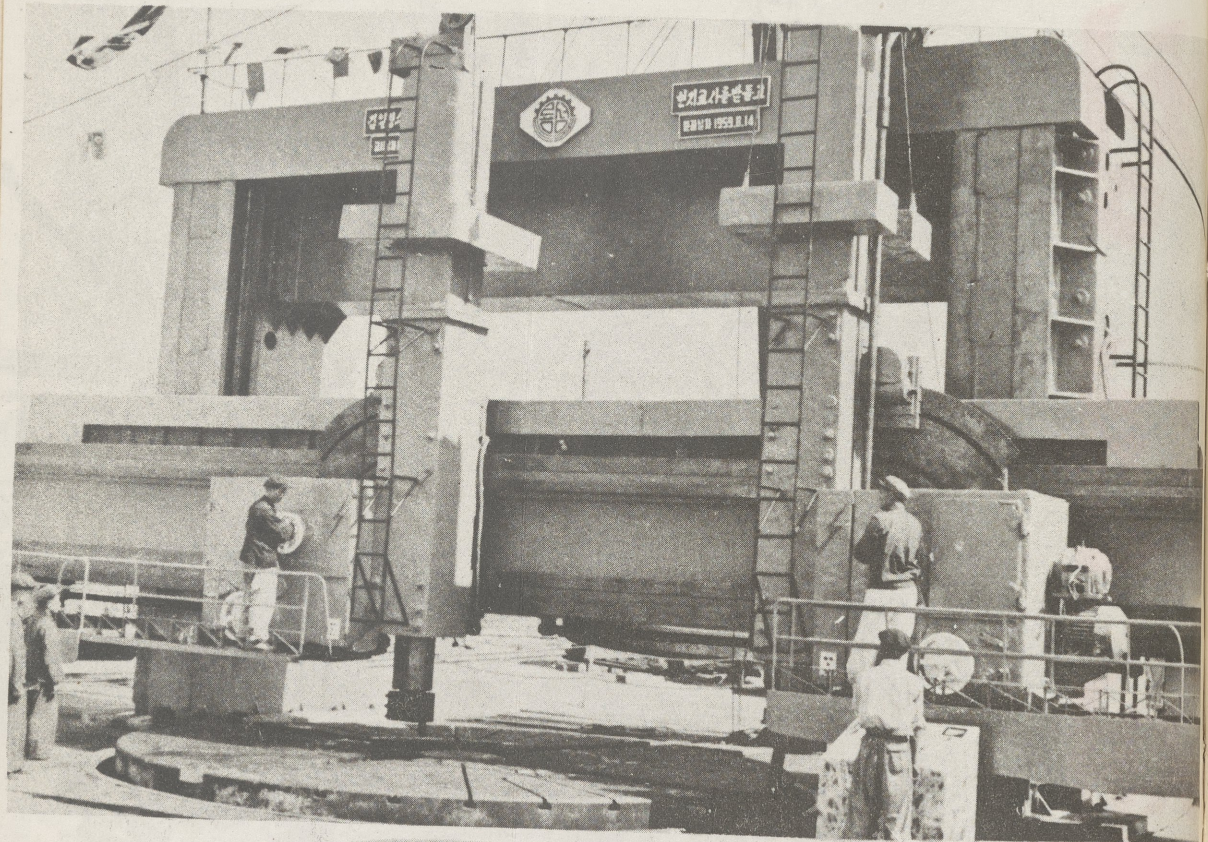
청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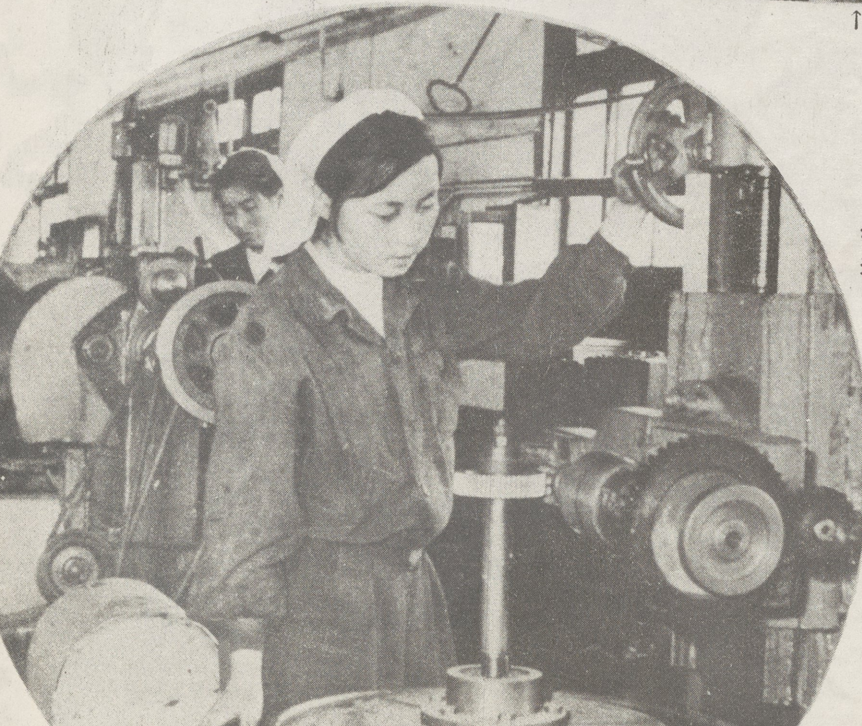


10

1959

기술 혁명 전선에서





↑ ★ 룡성 기계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의 집체적 지혜와 창조적 로력으로 불과 5개월 간에 8메터 타닝반을 생산 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과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커다란 전환의 계기로 될 것이다.》

← ★ 이미 43 대의 각종 공작 기계를 만들어 낸 청진 방적 공장 공무 직장 청년들은 금년 중으로 대형 프레나를 비롯한 114 대의 각종 공작 기계를 생산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10
(121)
1959

편집 위원회 리 홍종(주필)
전 성근 마 춘식 지 정린
박 승수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10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10월 10일 발행
(값 30 전 ㄱ—30604) 105,000부 발행

민청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중요한 계기

—민청 단체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맞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 (구역), 군 및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 지도 기관 결산—선거가 진행된다. 지도 기관 결산—선거는 결산 기간의 민청 단체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민청 내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지금 초급 민청 단체들 앞에는 결산—선거 사업 준비를 빈틈 없이 하여 그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중심 고리는 민청 내부를 튼튼히 꾸리는 데 있다

금번 진행되는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통하여 초급 민청 단체들이 해결하여야 할 중심 문제는 지도 기관을 튼튼히 꾸리며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을 더욱 강화하며 초급 민청 단체의 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초급 민청 단체 지도 기관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를 당성이 강하고 청년 군중의 신망이 있는 성원으로 꾸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도 기관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비계급적 현상과 타협 없이 투쟁하며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민청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초급 민청 단체의 자립성과 전투력을 제고하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을 더욱 강화하는 데 심중한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결산—선거에서는 민청원들의 조직 생활 정형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여야 하며 한편 결산—선거를 계기로 민청 규약 학습을 강화하여 매개 민청원들로 하여금 규약상 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일시 유리된 민청원들을 정확히 등록하여 결산—선거에 참가시키며 미조직 청년들을 교양하여 가맹시키는 사업도 결산—선거를 계기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현재 일부 농업 협동 조합내 부문별 민청 단체들은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므로서 그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금번 결산—선거를 계기로 각 부문의 초급 민청 단체 조직은 민청원들의 생산 활동과 조직 생활에 적응하게 정비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금번 결산—선거를 통하여 민청 사업 방법을 개선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낡은 《틀》에 얽매여 일을 벌려만 놓거나 번잡한 회의에서 구호와 만세만 부르고 허풍치는 등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검토 비판하며 지도 기관의 사업 수준을 높이고 열성자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 잡으며 사업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초급 민청 단체들은 이와 같이 민청 내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금번 결산—선거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 고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에 중심 력량을 경주할 것이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당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자

결산—선거를 통하여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종파의 여독과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가족주의, 지방주의를 근절하는 것은 현 시기 당

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금번 결산—선거를 통하여 매개 청년들로 하여금 종파의 본질과 그가 우리 혁명에 끼친 해독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동시에 그의 여독과 가족주의, 지방주의를 뿌리 빼기 위한 사상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부 청년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각종 그루빠적 경향을 청산하고 원칙적 립장에서 동지 호상간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이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실속 있게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를 위하여 지난 기간의 사업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혁명 전통 학습을 한 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혁명 전통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빨찌산 투쟁 행정에서 이룩한 맑스—레닌주의 사상 체계, 혁명적 사업 작풍과 방법 및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깊이 학습하여 그를 자기들의 실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이 사업 진행에서 일부 발로되고 있는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민청의 교양 체계,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 혁명 전적지와 연고지 답사, 문학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계기로 청년들 속에 당 정책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그 관철에로 동원하는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청년들로 하여금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한 창조적 로력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특히 당이 현 시기 중요하게 해결하고저 하는 수산업, 축산업 및 지방 산업 발전을 위한 당 정책 관철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전선에서 청년들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준비 사업을 빈틈 없게 하며 결산—선거 총회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자

지도 기관 결산—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준비 사업을 빈틈 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민청원들을 결산—선거에 열성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사상적 준비를 잘 하게 하는 것이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에게 지도 기관 결산—선거의 의의와 결산—선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심 문제를 사전에 잘 알려주며 특히 지도 기관에 진실한 핵심이 선거되도록 교양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민청원들이 민청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영예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결산 보고의 준비를 잘 하기 위하여 초급 민청 단체는 이에 광범한 열성자들과 민청원들을 적극 참가시켜 결산 기간의 초급 민청 단체 사업이 전면적이며 구체적으로 총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위한 총회는 회의 집행에서 낡은 고식적 《틀》과 관료주의적 방법을 없애 버리고 민주주의가 발양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총회가 심각한 비판과 자기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특히 지도 기관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발전시키며 민청원 호상간에 있어서도 결함과 부족점에 대한 동지적 비판이 활발히 전개되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결산 기간의 초급 민청 단체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 총화하여 성과와 경험을 발전시키며 결함을 시정할 대책을 세우며 당면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되게 할 것이다.

금번 초급 민청 단체 지도 기관 결산—선거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고 제 2차 5개년 계획 실행에 돌입하기 위한 완충기를 앞둔 환경 속에서 진행된다. 혁명의 고조는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며 새로운 혁명 과업은 민청 단체들의 전투력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전체 초급 민청 단체들은 금번의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통하여 민청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우리의 수령

권 신 손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을 두고 잊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 나에게는 일생을 통하여 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를 두고 전할 그런 기쁜 일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 우리 웅기영예 군인 생산 협동 조합을 찾아 오셨던 것이다. 그날 아침, 수령께서는 군내의 어느 기관, 어느 농촌에도 들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영예 군인 생산 협동 조합부터 찾으시였다.

자동차에서 내리신 수령께서는 잠시 주위를 돌아 보시더니 조합 현관 앞에 서 있는 우리(문화 부위원장인 리 호섭, 생산 지도원인 리 정모, 그리고 나 셋이 있었다)를 향하여 손질하시였다. 우리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바삐 걸어 갔다. 호섭 동무와 나는 의족을 했기 때문에 지팽이를 짚었다. 수령은 우리가 힘들게 걷는 것을 보시자 마주 걸어 오시며 우리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한참 말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그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였다.

《어떻게들 살아 가오?》

이 때 나는 목이 콱 메는 것을 느꼈다. 미국 놈들을 때려 부시는 가렬한 싸움 터에서, 어려운 행군에서 그리고 그 어느 때나 그토록 흠모하여 마지않던 경애하는 수령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던 수령께서 지금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고 물으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 감격하여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심정에 잠겨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수령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손으로 생활을 훌륭히 꾸려 나가고 있으며 문화 후생 기금까지 6만 5천 여원 (구화폐) 이나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즉시 우리 작업장들을 돌아 보자고 하시였다. 우리 작업장에는 그리 훌륭한 것은 못되나 그래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땀이 스며 있는 기계들과 작업 도구들 그리고 원료로 쓰기 위하여 주어 들인 조개가 있었다. 수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어 조개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살펴 보시는 것이였다.

그러다가 빨간 색을 칠한 조개 붕어 하나를 손에 드시였다. 수령께서는 빨간 붕어의 아래, 우, 옆, 꼬리 등을 찬찬히 살펴 보시더니 얼굴에 미소를 띄우셨다.

《아이들 장난'감을 이렇게 곱게 만드오?》

《수상 동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잉크 단지를 만듭니다…》

《아하 그것 참 좋소! 이 지방에 이런 원료가 많소?》

수령께서는 우리가 해변'가에 흔하고 흔한 조개 껍질을 리용하여 아름답고, 쓸모 있고, 값싼 일용품을 만드는 것을 칭찬해 주시였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 정책이 잘 관철됐다고, 지방 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6월 전원 회의 문헌을 잘 연구했다고 두번 세번 치하하시였다.

수령께서는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걸으시다가 문뜩 걸음을 멈추셨다. 수령께서는 공예반 반장인 한 효동 동무가 불구로 된 손으로 불안전하게 공예품을 쥐고 있는 것을 보신 것이였다. 내내 웃고 계시던 수령의 얼굴이 갑자기 흐려졌다.

수령은 그에게 다가 가시더니 몸소 그의 팔을 잡고 아래 우를 주물러 주시며 어떻게 손을 움직이는가를 찬찬히 살피시였다. 불구로 된 한 보통 병사의 손을 쥐고 수령은 한참 말이 없으시였다.

우리는 그이의 눈에서 맑은 이슬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복바치는 감격을 어찌할 수 없었다. 한참 후 수령께서는 우리를 돌아 보시다가 리 정모 동무에게 어디서 화상을 입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정모 동무는 1951년 가을 1,211 고지에서 싸웠다고 대답하였다. 단추반 로동자인 김 두성 동무도 바로 그 영웅적인 고지에서 두 다리를 상하고도 놈들의 공격을 끝까지 물리치며 싸웠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수령은 창밖으로 멀리 남녘 하늘'가를 내다 보시며

《1,211 고지!…》

하고 혼자 말처럼 하시였다. 수령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 놈들은 매일 휘발유탄을 떨구고 또 수만 발의 포탄을 쐈지… 고지를 없애 버리려고 덤벼 들면서…그러나 녹아난 것은 결국 제 놈들이야… 우리 인민 군대는 끝까지 견지했어, 영웅적으로 싸웠어! 우리 인민 군대 동무들이 제일이야!…》

수령은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인민군 용사들의 공훈을 높이 찬양하시였다.

《수상 동지, 우리는 그 때 한치의 땅도 내놓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생각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수령은 머리를 우리 쪽으로 돌리시였다.

《우리는 당의 붉은 전사들을 믿었고 동무들은 명령을 수행했소… 나는 동무들과 같이 있으니 참 기쁘오.》

그러면서 수령은 우리를 고무하여 주시는 것이였다.

《나는 동무들이 락관주의 정신으로 조선 청년답게 살기를 바라오. 영화 구경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잘 먹고… 그리고 일해야 되겠소. 하되 락관주의 기분을 가지고 일해야 하오…》

수령은 진정 그러기를 바라는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찬찬히 보시였다.

아—이런 때를 두고 감격에 심장이 터지는 듯 하다고 하는가! 나는 울먹울먹해지면서 막 수령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수령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택이 좋은가, 연료는 어떻게 보장 되는가, 영화 구경을 자주 하는가, 악기들이 있는가고 살림에 대하여 세세히 물으시였다…

마감으로 수령께서는 단추반 작업장에 들어가시였다. 작업장을 다 보고 나오실 적에 수령은 완제품 단추통 앞에 멈춰 서시더니 거기서 단추를 반줌 가량 쥐시였다.

《이걸 내가 가져 가겠소. 동무들이 만든 단추를 좀 갖다가 써야 하겠소…》 우리 동무들은 모두 눈물이 글썽해 서 있었다. 수령의 손'바닥에 놓인 납작납작한 조개 단추, 수령의 어버이 같은 정, 인자하신 웃음…우리는 단추를 들고 서 계시는 수령이 그지없이 고마웠다. 과연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신임, 이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의 수령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소박하고 정열적이며 누구나 허식 없이 맞아 주고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깊은 주의를 돌리시는 인자하신 분이다.

이 날 수령께서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기념 사진도 같이 찍으시였다. 지금 그 사진은 고운 액자에 넣어서 우리의 집집마다에 걸려 있다. 평양에 가신 후 수령은 누구도 빼놓지 않고 같이 사진 찍은 모든 동무들 앞으로 한 장씩 보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수령께서는 우리에게 선반기와 볼반, 열 대의 단추 기대도 함께 보내 주시였다.

수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배려와 고무는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불'길마냥 타오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수령의 교시와 애무에 한없이 고무 격려되여 보다 아름답고 보다 쓸모 있는 일용품을 24 종이나 만들고 있다.

이제 얼마 후부터는 우리네 고장에 매장된 수정을 채굴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광학 기구 가공에 착수하게 된다. 우리는 수령께서 보내 주신 기계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꼭 훌륭한 광학 기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대오에서 강철로 다져진 굳은 의지를 안고 수령의 영예로운 전사로서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칠 것이다.

당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지난 여름, 전국 축산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실천을 위한 궐기 회를 가졌다.

주 진엽, 김 옥녀를 비롯한 21 명의 청년들이 저마다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당의 축산 정책 관철에 바칠 것을 결의하면서 금년 중으로 축산반의 로력 구성에서 청년들이 70% 이상을 차지할 것을 다짐하여 나섰다.

그후 조합의 가축 두수가 늘어가고 축산 토대가 닦아짐에 따라 축산 작업반에 또 새로이 40 여 명의 청년들이 들어 갔다.

이리하여 우리 조합 청년들은 금년 중으로 청년들이 70% 이상을 차지하자던 결의를 75% 이상으로 넘쳐 실행하였다.

셀로쓰는 넉넉히 장만되였다.

금년에 우리는 158 두의 소, 16 두의 젖소와 343 두의 돼지 그리고 1,419 수의 닭, 300 여 마리의 토끼를 길러낼 것을 계획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그 많은 가축들을 무엇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공연한 욕심들만 부리지 말고 아예 먹일만큼만 기르자》고 우겨댔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한 일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물론 우리 조합엔 원래 축산 토대가 없었던 것만큼 갑자기 가축 두수를 늘군다는 것은 아름찬 일이기는 하였다. 허지만 우리는 당이 가르친 대로 전후작과 간혼작을 도입하여 토지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재배 사료를 확보하는 한편 방목지를 조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래 올해에는 우선 60 정보의 밀밭에 옥수수를 심었고 1 정보의 담배 밭에는 채소를 가꾸는 등 온갖 가능한 조건을 다 리용하여 490 톤의 청예 작물을 수확하게 되였다.

한편 우리는 217 정보의 방목지를 확보하였고 40 정보의 채산을 조성하여 놓았다. 이런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우리 조합 청년들은 300 평의 시험 포전에서 3모작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 사료도 확보하기 위하여 민청원들 매개인이 크로바, 능쟁이, 뚝감자 등 야생 식물 종자를 25 그람씩 수집하여 래년에는 더 많은 다즙 사료도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들은 셀로쓰 생산에 전력량을 기울였다. 래년 봄까지 가축들에게 영양가 높고 신선한 사료를 보장하려면 900 여 톤의 셀로쓰를 장만해야 했다. 게다가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일이여서 어떤 일이 있드라도 기한 내에 해내야 했다.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우리는 이 아름찬 일을 해낼 궁리들을 짜내여 끝내 해결 방도를 찾아 내였다.

김 옥녀 동무가 《옥수수는 관뚝 농사를 지여 놓았겠다 이젠 들판에 있는 풀을 베여 들이면 되는데 걱정할 것이 있나요? 문제는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해내려면 모두가 한 사람 같이 발벗고 나서면 되리라고 봅니다》고 말을 꺼내자 함 종구 동무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료를 담그자면 기계를 도입해야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내 생각 같애서는 민청 돌격조를 조직해 가지고 옥수수와 풀을 베여 들이면서 셀로쓰를 담그고 한편 기계화 분조에서는 우선 절단기를 한 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라고 그의 의견을 보충하였다.

더 론의할 것이 없었다. 모두가 그들의 의견에 찬동하고 곧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우리들은 셀로쓰를 담글 동안엔 작업을 주야로 계속 들이대자는 데 까지 합의를 보았다. 우리들은 우선 부족되는 셀로쓰 저장고를 석벽 지대에 건설하여 놓았다.

빈틈 없는 로력 조직에 의하여 발동되는 청년들의 눈부신 투쟁으로 셀로쓰 생산은 척척 추진되여 갔다. 게다가 기계화 분조에서 창안 제작한 사료 절단기와 새로 장만해들인 3 대의 동력 절단기까지 도입되여 최대한의 능률을 올릴 수 있었다.

밤낮을 이어낸 민청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드디여 지난 9월 7일에는 계획량 보다 320 톤이나 더 많은 1,220 톤의 셀로쓰를 기한 내에 장만해 넣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셀로쓰 생산에서 도 적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기술의 힘

경험은 급격히 증가된 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2모작에서나 가축들의 폐사률을 저하시키고 증산함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주요한 것은 작업을 기계화하며 선진 축산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난번 셀로쓰 생산에서도 그 많은 량의 사료를 일일이 작두로 썰어 내려면 어림도 없는 노릇이였다. 우리 민청원들은 기계화 분조를 조직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작업을 더 능률적으로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내기에 힘썼다.

신문지상에서 탈곡기를 리용하여 사료 절단기를 만들어서 생산에 도입한 경험을 알게 된 함 종구 동무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고심하던 끝에 나무를 누에다 날을 끼워서 돌아가게 함으로써 작두에 비해 10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사료 절단기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가축의 폐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가축들의 비육도가 높아지지 않는 원인은 축사 시설이 불비한 탓으로 하여 위생 조건이 보장되지 못한데 있었다. 그런 데다 모두가 처음으로 가축을 길러 보는 터여서 아직 사양 관리 기술이 부족한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청년들은 이 애로를 뚫고 나가기에 온갖 지혜를 다 바쳐 노력했다. 우리 민청원들은 당이 가르친 대로 지방 자재들을 적극 리용하여 이미 있는 불비한 가축사를 위생적으로 개조하는 한편 30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돈사를 새로 길이 60 메터, 너비 2메터의 궁륭식 돈사로 건설하여 놓았고 110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2 동의 토끼사도 2층으로 지여 놓았다.

우리는 한편 축산 기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힘썼다. 우리는 2 개의 축산 기술 크루쑈크에서 수의사인 신 재원 동무를 중심으로 사료 조리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료의 급식, 가축병의 예방 대책과 병 치료 등 축산 기술을 배우고 있다.

축사가 위생적으로 개조 신축되고 청년들의 가축 사양 관리 수준이 높아지자 가축의 폐사률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돼지가 조금만 먹지 않는다든가 병이 나면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관리 위원회로만 달려가던 김 옥녀 동무는 지금에 와서는 돼지의 구미에 맞게 사료를 조리할 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가축병 예방은 물론 주사까지도 훌륭히 놓을 줄 아는 관리공이 되였다.

토끼 사양공인 주 진엽 동무 역시 토끼가 새끼를 낳게 되면 빈번히 죽는데다 어미가 새끼들을 잡아 먹기까지 하여 난처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토끼 우리 안이 어둡고 불결한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아 낸 그는 우리를 크고 밝게 위생적으로 개조한 다음 분만할 토끼는 솜으로 둥지를 틀어 논 분만실에 따로 옮겨 놓았다. 이리하여 토끼의 폐사는 방지되였고 종부 조직을 계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1산 5 마리이던 것을 10~12 마리로 증가시키였다.

우리는 명년 초에 열리게 될 전국 축산 부문 청년 기술 혁신 캄파니야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매개 민청원들이 1인 1건의 새로운 창안을 내놓을 것을 결의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청년들이 축산 부문에 광범히 진출하여 축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호소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과 그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전국 축산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 결의 실천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회양군 신안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김 수 호



조선 로동당 (8)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어떻게 투쟁하여 왔는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견고성에 대한 엄숙한 시련이 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조직자적 및 지도자적 역할에 의하여 조선 인민들은 무비의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이 어려운 시기에 당내에 잠입하여 있던 간첩, 종파 도당들은 당을 은밀히 또는 공공연하게 공격하여 나섰다. 특히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 종파 분자들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당, 국가 기관 및 군대내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일시 규률이 해이되고 당내에서 비겁 분자, 우울 분자, 동요 분자, 요언 비어 분자 및 기타 각종 암해 분자들이 발생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는 당내에서 발생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은 이 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내 종파 분자, 자유주의 분자, 당 내외의 비겁 분자, 파괴 암해 분자 및 기타 온갖 불순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당의 규률과 당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며 후비 부대들을 신속히 훈련하여 적극적 추격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였다.

이 시기 혁명의 배반자이며 종파 분자인 허 가이는 취소파적인 반당적 행동을 감행하여 나섰다. 허 가이는 오래 전부터 당내에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업 작풍과 가족주의 분위기를 조장하여 오던 개인 영웅주의자였다. 그는 우리 당 대렬을 와해시키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는 목적하에 당 단체들의 복구 정비 사업 행정에서 관료주의, 제멸주의적인 반당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허 가이가 감행한 이 반당적인 취소파적 행동의 결과 당내 민주주의가 마비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이 억제되였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창발성도 억압당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굳은 련계에 큰 장애를 가져 왔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차 전원 회의는 반당 종파 분자 허 가이의 취소파적 좌경 기회주의 행동을 폭로 분쇄하고 당의 공고화를 위한 일련의 정치 조직적 대책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당 조직 사업은 현저히 개선되고 당은 대중과의 산 련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급속히 강화 발전되였다. 이리하여 당은 단결된 력량으로써 인민 대중을 동원하여 두차에 걸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분쇄하였으며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적 패배를 주었다.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의 간첩 및 종파 행동은 더욱 표면에 대두하였으며 당내에 잠입하여 있던 종파 분자들은 또다시 각종 형태로 련합되기 시작하였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은 북반부에 들어온 이후부터 미제의 고용 간첩들과 혁명에서 변절 타락한 자기의 추종 분자들을 당 및 국가 기관에 잠입시키며 허 가이, 주 녕하, 박 일우 및 기타 북반부에 잔존한 분자들을 자기의 주위에 규합하면서 당내에서 호상 리간과 알륵을 조성하며 각종 종파 행동과 종파 사상을 고취하여 왔다. 1950년 여름 인민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서울에서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로지 조사 위원회》를 비롯한 기타 테로 단체들을 조직하여 수많은 애국자들과 당원들을 암살하였으며 군사 및 국가 비밀들을 적에게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기에는 미제의 군사적 공세와 합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을 음모 준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또한 오래 전부터 겉으로는 당 중앙을 찬양하고 뒤에서는 당과 당 정책을 비방 공격하며 부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종파 분자 박 일우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당 대렬을 파괴하고 자기의 출세주의적 야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과 결탁하여 공공연히 당을 반대하고 당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 장 시우, 주 녕하 등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의 추종 분자들과 허 가이 등 종파 분자들은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과 결탁하여 당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당 앞에는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하며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행동의 일치를 튼튼히 보장하여야 할 긴급한 제 대책이 요구되였다. 그리하여 1952년 12월 당 중앙 위원회 제 5차 전원 회의가 소집되였다. 5차 전원 회의 문헌을 토의하는 행정에서 당원들의 당성과 경각성이 일층 제고되였으며 당내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이 강화되였고 당내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양되였다. 결과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들과 기타 종파 분자들이 적발 폭로됨으로써 당내 순결성이 보장되였으며 당의 강철같은 사상적 통일과 조직적 단결이 튼튼히 유지되였다. 그 후 강철의 대오로 장성된 100만 당원들의 높은 경각성에 의하여 흉악한 원쑤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과 그의 심복들은 우리 당 대렬에서 청산되였다.

이리하여 전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되였으며 당의 위력은 전례 없이 장성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인민들을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력사적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전후 시기 우리 당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우리 혁명 과업 수행을 더욱 촉진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우리 당과 인민이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어려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시기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한 반당 종파 분자들은 반당 종파 행동을 계속하면서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국내외에 비록 일시적이나마 어려운 정세가 조성된 기회를 리용하여 당에 도전하여 나섰던 것이다. 당시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며 국내적으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국제 반동의 《반쏘 반공》 깜빠니야에 보조를 맞추어 《북진》 소동을 격화시키고 있었으며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복잡한 시기를 리용하여 반당 종파 분자들은 당과 정부를 반대하는 반혁명 음모를 흉책하였다.

이자들은 자기들의 반당 반국가적 진출을 감행하기 위하여 온갖 허위와 날조로써 대중을 기만하여 당을 비방 중상하였다. 특히 이자들은 국제 수정주의의 《구호》를 밀수입하여 그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당과 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여 나서는 데 리용하려 하였다.

그러면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은 당을 반대하여 어떤 죄행을 감행하였으며 그 죄행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첫째로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종파 분자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여 나섰다. 서 휘는 직맹을 당 우에 올려 세우려 하였으며 김 두봉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를 당 우에 올려 세우려 하였고 일부 반당 종파 분자들은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려고 시도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조직의 최고 형태이며 혁명 과업이 복잡하고 곤난하고 방대할 수록, 또한 혁명적 범력이 심각할 수록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추악한 종파적 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헤게모니야》 쟁취에 광분한 종파 도당들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며 그를 말살하려 하였다.

둘째로 반당 종파 도당은 레닌적 당 생활의 규범으로 되는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반대하고 당내에서 무원칙한 《민주주의》와 종파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였으며 지어는 반 맑스주의적인 소위 《종파 유익설》까지 주장하였다. 반당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당내의 무정부주의적인 혼란 상태를 조성하며 당을 실제적으로 무장 해제시킴으로써 자기들의 롱락물로 만들려는 기도였다.

세째로 반당 종파 도당들은 해방 후 10년 동안 우리 당이 실시하여 온 제반 시책들의 정당성과 우리 당의 령도하에 인민들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와 업적들을 부인하고 말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자들은 특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정당한 경제 정책을 훼방하면서 우리 당이 마치 인민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한 듯이 시비하여 나섰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각종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당 경제 정책의 관철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려고 악랄한 책동을 하였다.

네째로 반당 종파 도당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적 핵심을 헐어 버리고 당과 정부의 간부 대렬을 혼란시킴으로써 자기들이 당과 정부에서 《헤게모니야》를 장악하려고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사상 체계를 와해시키고 당을 조국과 혁명을 말아 먹으려는 인간 쓰레기들인 종파 분자의 롱락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미 폭로된 바와 같이 김 두봉은 철저한 무정부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로서 8.15 전에 장 개석의 특무 기관인 《람의사》에 의하여 부양되였으며 특무 학교의 교원으로 복무한 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다. 윤 공흠은 대지주의 아들이며 일제 군대의 비행사로 복무하였고 고 봉기는 면장의 아들이였으며 《람의사》의 특무로서 복무한 혁명의 적이다.)

다섯째로 반당 종파 분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거부하여 나섰으며 부르조아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창하는 등으로 우경 투항주의에로 전락되였다. 이자들은 《준법성》이니 《인권 옹호》니 하는 구실하에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법질서를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인민의 정당한 심판을 받은 반혁명 분자, 반국가적 범죄자들을 《무죄》 석방하려고 획책하였으며 청산된 지주, 자본가들과 믿을 수 없는 불견실한 계층들을 추켜 세우는 등 적대 세력 앞에 굴복하는 참을 수 없는 우경 투항주의로 전락되였다. 이리하여 이자들은 도리여 간첩 및 반혁명 분자들과 결탁하는 반혁명의 진흙탕으로 완전히 떨어져 갔다.

여섯째로 반당 종파 도당은 우리 당과 형제 당들 간의 전통적인 국제주의적 친선 관계를 훼손시키기 위하여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리간과 대립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의 결정을 《이단시》한다고 떠들면서 쏘련 공산당과 우리 당을 리간시키려고 하였다. 심지어 이자들은 우리 나라를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떼여 내며 소위 《중립국》으로 선포하려는 극히 반역적인 흉계까지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최 창익 도당은 이상과 같은 반당적, 반인민적 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악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이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도전적 행위를 감행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 당과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와 폭동 및 테로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그것을 당내에서 감행될 자기들의 도전적 책동에 배합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자들은 당내에서 온갖 불순한 요소들을 규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까지 온갖 불순 분자들과 반동 계층들 지어는 미제의 고용 간첩을 비롯한 적대 분자들과도 결탁하고 그들을 규합하여 자기들의 반혁명적 음모에 인입시킬 것을 기도하는 데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는 이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들을 폭로 규탄하고 그의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을 전개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최 창익 도당의 극악한 죄행은 100여만의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이 반당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는 전 당적, 전 인민적 투쟁 행정에서 그들은 완전히 폭로 분쇄되였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가 이 한줌도 못되는 딱정벌레와 같은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을 우리 당 대렬에서 축출한 것은 백번 정당한 것이며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의 또 하나의 명백한 시위로 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청원들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온갖 종파 분자, 기회주의 분자들을 반대하여 당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불패의 당으로 장성 발전되였으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 왔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혁명 승리의 튼튼한 담보이다.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당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숭고한 의무로 된다. 특히 우리 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인 민청 단체들과 전체 민청원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종파 사상의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의 경험은 종파 사상이 얼마나 집요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 대렬내에서 종파 분자들은 제거되였으나 이것은 그의 여독이 완전히 청산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종파의 사상적 여독은 근절되지 않고 당의 공고화와 당 정책의 성과적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때문에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종파의 사상 여독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지방주의와 가족주의 등 그루빠적 경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의 온상으로 된다. 최 창익을 비롯한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은 바로 지방주의, 가족주의적 경향을 교활하게 리용하고 조장시켜 불견실한 자들을 규합하여 자기의 종파적 지반을 꾸미려고 하였다. 전체 청년들은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본질과 그의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여 동지 호상간의 원칙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것은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청년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언제 어디서나 추호의 동요도 없이 신뢰하며 그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같은 숨을 쉬며 같은 말을 하는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

민청 단체와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혁명 선배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와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자기의 실 생활에 구현하며 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를 무조건 관철하는 당의 충실한 전사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당 정책에 대한 어떤 딴소리나 또는 그를 불성실하게 집행하려는 현상과 추호도 용서없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끝으로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민청 생활에 충실하며 조직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일체 불건전한 경향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페지에서 계속)

적을 호소하고 있다.

이상에서 간단이 찾아 본 바와 같이 이 노래는 철두 철미 투쟁에 대한 호소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여 있다. 동시에 이 노래는 그 형식에 있어서도 대중 가요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우선 그 구성에서 보더라도 기승전결이 매우 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싸움에의 준비로부터 시작하여 전투, 개선, 전망 등이 매우 압축된 내용 속에서도 생동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그 언어에 있어서도 내용에 상응하게 아주 간명하고 직감적이며 힘이 있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에서 《억천만번》은 얼마나 세련되고 힘있는 표현인가! 만일 이 표현을 《천만억번》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그렇게도 그 속에서 맥박치는 억센 힘을 도저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 밖에 이 노래에서 리용되고 있는 점도법은 이 가요의 박력과 호소성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매우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용진용진 나아 가세 용감스럽게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이 외에도 이 노래의 형식에서 모범 받을 점들은 허다하다.

바로 항일 유격 대원들이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대'가로,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회에서 마음껏 삶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령도 밑에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 앞당겨 완수하고 계속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가세로 내달리고 있다.



허천 청년 광산이 자리 잡고 있는 배나무'골에는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2천 만 톤에 가까운 자철광이 매장되여 있다. 그런데 이 광산은 일년 전만해도 이름이 없었다. 일본놈들이 되는 대로 파 먹다가 도망친 갱구에는 관목이 우거졌고 땅 속에 파묻힌 시설들은 긴 세월을 두고 녹쓸어 못쓰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광산은 오래동안 우리 나라 산업 지도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는 이 광산을 개발할 것을 결정하고 청년들을 불렀다.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당의 구호에 고무된 함남도 각지 청년들은 민청 파견장을 받아 들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그리하여 1년이 지난 오늘은 갱마다에서 발파 소리 요란하고 청년 개발자들은 왜놈들이 6년을 계획했던 삭도를 불과 3개월만에 훌륭히 완공하였다. 오불고불하던 달구지길이 폭넓은 산업 도로로 변했고 한적한 산촌에 주택이며 구락부며 탁아소, 세탁소, 병원 등 각종 건물들이 즐비하니 들어섰다. 그리하여 오늘 이 광산은 청년의 이름을 지니고 다시 산업 지도에 오르게 되였다.

이곳 청년 광산 개발자들은 《모든 건설이 강철에 걸려 있는데 강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도 더 지을 수 있는 것을 짓지 못하며 기계를 더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지 못하며 생산의 기계화나 자동화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명심하고 한톤의 광석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얻기 위하여 모르는 것은 배우고 난관과 애로를 박차면서 불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산업 도로에 놓일 《청년교》를 가설할때 있은 일이다. 때는 11월 중순 한난계는 령하 15도를 가리켰고 강은 얼어 붙었다. 만약 다리 가설 공사를 중지한다면 애써 산업 도로를 닦은 보람이 없을 뿐더러 그 만큼 광산 건설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청년교》 가설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이 난공사를 앞에 놓고 민청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최 재빈 동무는 《동무들! 나는 군대에서 공병이 였습니다.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는 전투에서 탄우 속을 뚫고 수다한 도하 작전을 보장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깨 우로 전우들과 전투 기재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전투원의 정신으로 이 강물에 달라 붙는다면 능히 다리 가설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를 보다 빛내일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두 패로 조를 조직하였다. 최 재빈 동무네 조가 먼저 살얼음을 가르고 물에 뛰여 들었다. 점심 전에 76%의 일을 해낸 민청원 전 명술 동무는 이렇게 제의하였다. 《우리는 교대를 하지 맙시다. 밖에 나가면 몸이 얼어서 다음 작업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호응한 최 정률 동무네 조도 강에 뛰여 들었다. 그날 그들은 24시간 동안 물 속에서 혁명가를 부르며 일을 계속했다. 이러한 영웅적인 투쟁에 의해 그들은 나흘 동안에 뻬야 두 개를 세우고 다리를 완공했다. 그들의 위훈을 기념하여 이 다리를 《청년교》라고 이름지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렇게도 난공사였던 삭도의 철탑을 조립하는 공사가 진행될 무렵이다. 이 철탑 공사에 참가한 최 부재 동무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고향에 방적공이며 로력 혁신자인 애인이 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은 목전에 다가 오는데 아무리 타산해야 철탑 공사는 그때까지 끝날상 싶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야 작업을 도중에서 팽개치고 갈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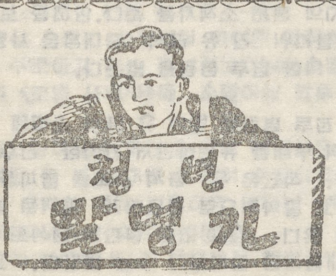
그의 머리에는 1930년 동북 어랑촌에서 적들의 공격 앞에서 항일 빨찌산 13 명의 용사가 가렬한 결사전에 자원하여 나서는 형상이 번개 같이 떠올랐다. 그들은 총탄이 다 떨어지자 돌로 싸우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고지를 사수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13 용사는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전 유격대의 전우들과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광산 건설의 중요한 삭도 공사를 팽개치고 애인을 맞으려 가다니? 이렇게 생각한 그는 애인의 동의를 얻어 결혼식을 철탑 공사 완공의 날로 연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삭도 건설의 초기 부터 완공될 때까지 공사에서 떠나지 않고 로력적 위훈을 발휘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40 메터에 달하는 39 개의 높은 철탑에다 12 키로메터의 와이야로쁘를 늘이는 공사의 앞장에 섰다. 또한 그는 하루속히 연공 기술을 습득하여 삭도 건설 공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 습득에 남다른 열성을 발휘하였다. 100 키로의 세멘트를 등에 지고 1,000 메터 이상 되는 고지를 하루에 네번씩 오르내리고도 밤이면 40 메터의 높은 철탑을 오르 내리며 연공 기술을 배웠다. 공사가 끝날 무렵에 그는 6급공의 기능을 소유하였다.

허천 청년 광산 건설에서 당면 문제는 굴진이다. 굴진을 보장하자면 무엇 보다도 착암수를 비롯한 각 부문의 기술자들이 요구된다. 그런데 개발자들의 대부분은 착암기를 구경조차 하지못한 청년들이였다. 광산에서 온 착암수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이들만 가지고는 굴진을 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광산 민청 위원회는 당 및 행정과 토의 밑에 개발자들 속에서 새 것에 민감하고 모범적인 리 신정 동무와 박 재식 동무를 비롯한 10 명의 청년들을 만덕 광산과 검덕 광산에 견습공으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불과 45일간에 착암 기술을 배워냈을 뿐만 아니라 리 신정 동무는 3개월 만에 6급공이 되였고 박 재식 동무는 5급공이 되였다. 광산 민청 위원회는 이 동무들을 중심으로 착암수 학교를 조직하였다. 한편 학교에서 배운 리론을 곧 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착암수 양성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그 활동을 강화하였다.

광산 민청 위원회는 착암수 학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험과 모범을 일반화함으로써 착암수 대렬이 35 명으로 늘었고 그의 평균 급수는 5.5급으로 높아 졌다.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굴진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 났는데 기본 굴진을 처음으로 시작하던 4월에 비하여 8월에는 2배로 장성하였다. 이와같이 청년 개발자들은 높은 봉우리, 깊은 땅 속에서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광산 청년들은 당에 드리는 선물로서 년산 30~40만 톤의 광석을 채굴할 것이다.

본사 기자 강 영수



천리마 고속도 분쇄기

민청원 안 준섭 동무는 지난 4월부터 진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최근 《천리마 고속도 분쇄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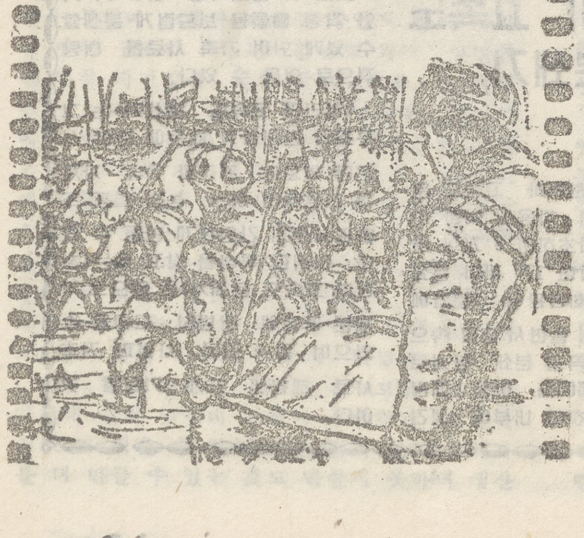
이 《천리마 고속도 분쇄기》는 1시간에 420~600 키로그람의 밀을 분쇄할 수 있는 데 종전의 분쇄기에 비하여 10 배의 능률을 낼 수 있다. 《천리마 고속도 분쇄기》는 원심력 작용에 의한 타박식 원리에 기초하여 8 개의 바람개비를 포함한 176 개의 분쇄 날개가 달린 회전판이 1분간에 3,000~3,700회 돌면서 원판 속으로 들어간 알곡을 분쇄 날개로 1초 동안에 500회 이상 때려 보드럽게 분쇄하고 내부에 생긴 바람의 작용으로 가루를 채'구멍으로 내여 보내게 되여 있다.

또한 이 분쇄기는 굵은 벼'겨와 각종 뼈들을 보드럽게 분쇄할 수 있게 되여 가축 사료를 대량적으로 얻을 수 있다.

《천리마 고속도 분쇄기》는 그 구조가 간편하기 때문에 단야 시설만 있으면 파철과 유휴 자재를 리용하여 어느 농업 협동 조합에서든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천리마 고속도 분쇄기》는 앞으로 각 제분 공장에 광범히 도입될 수 있으며 알곡 가공 사업과 가축 사료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조선 예술 영화

1938년 겨울, 조선 인민 혁명군 사령부 직속 부대들은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몽강 지대를 떠나 장백 지대와 조중 국경 지대를 향하여 수백회의 전투를 계속하면서 3개월 가까이 어려운 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일제 관동군 《토벌 사령부》에 새로 부임되여 온 마쯔나가 대좌는 일제의 쏘련 침략을 곤난케 하는 우리 유격대의 사령부를 《섬멸》하려고 병력을 총동원하여 《춘기 공세》를 획책하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원쑤들의 이 모략을 간파하시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오히려 적들의 《토벌 사령부》를 섬멸하기 위하여 부대를 수개의 소조로 나누어 그 모두가 적들의 눈에는 빨찌산 사령부로 보이도록 하며 사분 오렬시켜 섬멸해 버리는 안개 전술 작전을 제시하시였다.

방금 전투를 승리로 끝낸 빨찌산 대원들이 곤첩게 휴식하고 있다. 한편에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중대장 유 금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때 그의 대원이며 안해인 김 수영이 찾아 온다. 김 수영은 사령부의 지시로 피복 준비와 환자 치료 때문에 후방 밀영으로 떠나게 되어 작별하러 온 것이다. 유 금석은 일시 중대와 떨어져 있을 사랑하는 대원—안해에게 조선 혁명의 성격에 대하여 쓰신 김 일성 동지의 론문 소책자를 준다. 안해를 보낸 후 련대장에게 불리워 간 유 금석 중대장은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의한 전투 명령을 받는다.

이리하여 전투 명령을 받은 유 금석 소조의 대원들은 적 주력 부대를 유도하면서 간고한 전투 행군을 시작한다. 적들은 유 금석 소조를 빨찌산 사령부로 오인하고 발악적으로 집요하게 병력을 증가하면서 공격해 온다. 그 어떠한 난관과 희생도 유 금석 소조의 대원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업고 무릎까지 빠지는 아픈 봄의 눈'길과 억수로 퍼붓는 비바람 속에서 진펄을 건너고 준령을 넘는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식량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다 그들 앞에는 험산 준령이 가로 막혀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곤난한 정황에 부닥쳤을 때마다 당 협의회를 열고 난국을 타개하였다.
유 금석은 당 협의회 끝에 품 속에 고히 간직했던 조국의 흙을 꺼내여 대원들에게 돌린다. 대원들은

준령을 넘어서

자대로 조국의 흙을 냄새 맡으며 씹어보며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들은 언젠가 모닥불 옆에서 사령관 동지가 그 흙을 손에 드시고 이 흙에서 그리운 조국의 땅만 볼 것이 아니라 원쑤에게 짓밟혀 사는 조국 인민들의 가쁜 숨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또 우리는 이 불행한 땅을 행복한 땅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로 두표와 송 영섭은 명령에 의하여 식량 공작을 나갔다. 식량을 구해가지고 돌아 오던 그들은 적들의 기습을 받는다. 여기서 두표는 영섭을 잃는다.
부상당하여 정신을 잃었던 송 영섭은 산전막의 어떤 사나이에게 구원된다. 그를 《구원》한 자는 다름아닌 《엠. 엘》종파 분자이며 마쯔나가의 특무로서 유격대에 잠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최 재윤이었다. 간첩 최 재윤도 송 영섭을 부축하고 사자 바위까지 왔다. 최 재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 수영에게 권총을 겨누고 사령부 명령을 내놓으라고 위협한다.
위기일발의 순간이다.
의식을 잃었던 송 영섭이 이 광경을 보고 그는 자기 희생적으로 김 수영을 보위해 나선다. 영섭은 최 재윤의 권총에 맞았으나 최후의 힘을 다하여 원쑤를 쏘아 넘기고 자기 생애를 마친다.

유 금석 소조는 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삼'골 목재판에 주둔하고 있는 적 《경비대》를 소멸한다. 이것은 적 《토벌 사령부》를 소탕하는 전투의 전술적 일환이 였다.
목재판 경비대에 파견된 적의 응원군은 도중에 매복해 있던 오 준 련대에 의하여 소탕되고 그 사이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 지휘하의 부대는 적 《토벌 사령부》를 송두리채 소탕해 버렸다.
유 금석 부부는 삼'골 목재판을 해방시킨후 뜻밖에도 수년전에 헤여졌던 아들과 부모를 만난다.
영화는 빨찌산 대원들과 인민들이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경애하는 김 일성 장군을 맞이하러 나가는 데서 끝난다.

이 영화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고상한 애국주의와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 온갖 난관과 애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투사들의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를 감동적으로 보여 준다.









동해에서 온 편지

수령께서 다녀가신 후

우리는 지난 6월에 영예롭게도 김 일성 수상님의 현지 지도를 받았다.

조합을 돌아보신 수상님께서는 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뜯어 먹으라》는 구호를 내놓고 있는데 척박한 땅에만 매달려서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청년들이 바다에 많이 나가서 이 부문 사업을 혁신하며 한 걸음 더 전진시켜야 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합 청년들은 수상님의 현지 교시를 실천하는 길에 들어섰다. 민청원들은 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궐기회를 가지고 저마다 배를 탈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주 도희, 리 창숙을 비롯한 6 명의 처녀들을 포함한 13 명의 청년들이 배를 타게 되였고 나머지 청년들도 모두 가공반에서 일하게 되였다.

수상님이 교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선 조합의 수산업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전에 5 척 밖에 없었던 범선 6 척을 더 장만하여 11척을 가지게 되였고 그 밖에 저예망선 《민청호》도 한 척 장만하였다. 또한 조개잡이가 아니면 고기떼가 나타났다고 해야 바다로 나가던 소극적인 어로 방법을 퇴치하고 고기'배에 2중 어구를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고기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출어 일수를 300일 이상 보장하라는 수상님의 교시를 어김 없이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청년들은 난생 처음으로 배를 타는 사람도 있는 터여서 우선 어로 작업에 참가하는 한편 바다를 사랑하며 바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들은 고기 잡이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그냥 배에서 생활하면서 배'일에 손을 익히기에 힘썼다. 한편 수영도 배우며 노젓는 련습도 하면서 손색없는 청년 어로공으로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경험 있는 기능자들을 초빙하여 수산 기술 크루쇼크에서 그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낚시 놓는 법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씩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차차 어로 작업에 익숙해 지기 시작한 우리들은 원해에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러번 실수를 했지만 얼마 안되여 기능 있는 어로공들을 따라 잡게 되였다.

기능이 있는 어로공들이 하루에 평균 80~100 키로그람 밖에 잡지 못하는 낙지 잡이에서 주 도희 동무는 혼자서 140 키로그람의 낙지를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바다는 척박한 땅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 이미 있는 11 척의 범선을 기관선으로 개조하여 어로 작업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언제나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부문을 담당해 나가면서 수산 부문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를 박차고 더 재롭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청춘의 정열을 다 바칠 각오이다.

강원도 통천군 장진 수산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신 승희**



서해에서 온 편지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는다

우리 수산 사업소에는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50 여 명의 민청원들이 새로 진출해 왔다.

그때로부터 불과 몇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수산 사업소 일부 일'군들은 앉아서 고기떼가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특수》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우리 민청원들은 이와 같은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그릇된 관점을 박차 버리고 수상 동지가 교시하신 것처럼 앉아서 고기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

이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 들어온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는 기능 있는 어로공들에게 개별적으로 기능을 전수 받는 한편 기술 전습회를 통하여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더 힘들고 더 긴요한 모퉁이를 담당해 나설 수 있게 되였다.

《민청호》 안강망 33호에는 대부분이 새로 진출한 민청원들이 였지만 그들은 주로 원해와 심해 어업을 맡아 나섰다. 이들은 해로로 200 리'길이나 되는 먼 바다로 나가서 갈치, 민어, 백하, 강달어 등을 잡았고 새로운 어족까지 발견하여 잡아냄으로써 심해 어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보수주의적 견해를 깨뜨려 버렸다. 또한 우리는 년간 300일 출어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리하여 《민청호》 안강망 33호는 제일 먼저 제 1차 5개년 계획을 지난 5월 말 현재 105%로 초과 완수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았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교시대로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심해 어업과 중소 어업을 배합하며 다양한 어로 방법을 적용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물고기를 잡은 데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바다에 오래동안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하여 학습과 문화 오락 사업도 다양하게 조직하고 있다. 특히 고기떼를 기다리는 어간에 《항일 빨찌산 회상기》를 가지고 배 우에서 진행한 혁명 전통 학습은 청년들로 하여금 혁명 투사들의 고상한 품성을 배우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진출한 어로공을 난관 극복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의 품성으로 교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바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다.

문덕 수산 사업소 민청 위원장 **리 춘섭**



기시 정부의 배신적 책동을 규탄한다



전체 조선 인민들과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조일 량국 적십자 단체들 간의 협정 체결을 기대하였으며 그의 조속한 실현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 기대와는 어긋나게 기시 정부의 배신적인 협정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조선 공민들의 귀국 문제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기시 정부는 일본 적십자사로 하여금 소위 《귀환 안내》를 발표케 하였는바 이에는 귀국자들의 의사 변경을 강요할 흉계 밑에 귀국 신청시에 그가 《완전한 자유 의사에 의한 결심인가의 여부》를 따지며 니이가다에 《비밀실》을 설치하고 승선 직전에 매 귀국자들을 위협적으로 심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귀국 안내》는 귀국자들이 일단 렬차에 오른 이후에는 그 차'간을 모두 폐쇄하고 그후 승선할 때까지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죄수나 포로와 같이 취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심지어 귀국자들이 그리운 자기 조국의 기'발인 공화국기까지도 렬차'간에 날리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경찰로 하여금 귀국 희망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케 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 기시 정부의 이 모든 책동은 국제적 협정에 대한 란폭한 배신적 위반 행위이며 인권 유린 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민족적 모욕이다.

제반 사실은 기시 노브스께가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과 미리 공모하여 《귀국 안내》를 꾸며 냈으며 《한일 회담》을 조작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문제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기시 정부의 배신적 책동을 결코 묵과 용허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일본 당국이 비단 오늘에 와서 뿐만 아니라 력사적으로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이러한 비 인도적 행동을 감행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다. 일제는 반세기에 걸쳐 조선을 강점하고 자기들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수많은 조선 청년들을 강제 징병 또는 징용으로 일본에 끌어가 갖은 만행과 참을 수 없는 학대와 멸시를 다하였다. 그런데 기시 정부는 지금 체결된 귀국 협정마저 파괴하고 재일 공민들이 귀국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인권을 유린 모독하며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일본 당국의 이 추악한 배신 행위에 대하여 격분을 참을 수 없으며 그들의 파렴치한 책동을 견결히 항의 규탄하고 있다.

귀국할 사람은 짐을 꾸리고 떠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받아 들일 우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남은 것은 일본 측이 조인한 협정 대로 돌려 보내기만 하면 된다. 재일 조선 공민들이 일본 측의 배신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더처울 엄중설한 속에서 가중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기시 정부가 비렵적 흉책을 그만 두고 재일 조선 공민들을 그들의 의사대로 그리운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돌려 보낼 자기의 국제적 의무를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김 삼 민



혁명 가요 해설

유격대 행진곡

김 오 준

《유격대 행진곡》은 오늘 우리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혁명 가요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온 몸의 피가 끓어 오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결의로 충만된다.

《유격대 행진곡》은 모두 네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 매 절마다에 동일한 후렴이 반복된다. 이 노래의 구성은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가사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가세
용감스럽게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이상 제 1절에서는 우선 원수 일제를 격멸하기 위하여 나아 가는 항일 유격대원들의 내면 세계를 극히 박력 있고 생동하게 노래하고 있다.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잡아 흔드는 말인가! 우리 인민들에게서 땅을 빼앗고 사랑하는 부모 처자와 아름다운 고향 산천을 빼앗아 간 원수, 우리 인민에게서 자유 행복의 조그만 권리마저 산산이 깨여 버리고 악착하게 유린한 원수, 오직 조선 인민에게는 불행과 고통과 질식의 노예적 멍에와 죽음만을 강요한 그놈—조선 인민이 도저히 하늘을 같이하고 살 수 없는 원수 일제에 대한 항일 유격대원들의 불타는 적개심을 보라! 그리고 비록 억천 만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원수를 쳐 없애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그 열렬하고 견결한 기백을 보라!

(후렴)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 용진 나가세 용감스럽게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일제 강점자들과의 싸움— 이것은 바로 《판가리 싸움》이다. 그만큼 싸움은 격렬하고 간고하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싸움의 준비를 튼튼히 하고 더욱 용감하게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대장 사격 구령 한번 웨칠 때
전대 동무 거总총을 받들어 쥐고서
악악소리 웨치면서 돌사격 통에
적의 군사 정신 없이 막 쓰러진다.

이상 제 2절에서는 구체적인 전투 환경을 노래하고 있다. 대장의 사격 구령이 떨어지자 전 대원들은 원수를 겨눈 총을 바싹 들어 쥐고 멸적의 총탄을 쏟아 붓는다. 원수들은 삼'대 쓰러지듯 나가 넘드러진다. 특히 이 경우에 항일 유격대원들의 기세는 더욱 격앙된다. 그리하여 《악악소리 웨치면서 돌사격》한다. 이 《판가리 싸움》에서 항일 유격대원들의 사상—정신적 준비는 벌써 원수들을 압도하고 적을 완전히 타승하고 만다.

기세 맞춰 승리의 함성 드높이
전대 동무 무장 뺏아 둘러 메고서
승전고에 걸음 맞춰 노래부르며
어깨춤을 모두 추며 돌아 오누나.

제 3절에서는 원수들을 완전히 타승하고 돌아 오는 승리의 개선'길을 노래하고 있다. 즉 항일 유격대원들은 원수들의 무장을 많이 로획하여 가지고 기세도 드높이 보무 당당하게 귀로에 오른다. 승리의 함성은 하늘 땅을 울리며 승전고와 노래 소리는 유격대원들의 심신을 더욱 가볍게 한다. 원한 서린 일제에 대한 대승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춤이 절로 날 만큼 유격대원들을 흥분시킨다.

썩어 가는 제국주의 두드려 부시고
무너진 그 터전에 새 터를 닦고
로농병의 대표 정권 건설하고서
붉은 기를 휘날리며 낙원에 보자

이상 4절에서는 항일 유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지향, 항일 무장 투쟁의 목적이 명백한 혁명적 락관 속에 노래되고 있다. 이 혁명적 락관성은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맑스—레닌주의 불멸의 생활 진리와 튼튼히 결부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기 세대를 다 산 제국주의—일본 강점자들의 패망의 불가피성을 확신하면서 그 대신 조선 인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는 인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이며 인류의 지상 락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 갈

(11 페지에 계속)





— 문덕군 립석 농업 협동 조합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에서 —

문덕군 립석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일찌기 보지 못하였던 대풍작을 이루었다.

이미 추수를 끝마친 500 조는 정당 19 톤의 수확을 냈다. 그밖에 중생 은방주는 정당 50 톤, 룡성 1호는 31 톤의 수확이 나리라는 타산이 선다. 이러한 벼 다수확은 일제 시대에 정당 2 톤의 수확도 못내던 땅에서 이루어졌다. 금년에 벼 농사의 성과를 결정한 것은 심경, 밀식, 다량 시비 등 당이 내세운 집약화 농법의 철저한 도입에 있었다.

심경과 다량 시비

심경과 밀식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결정적 고리는 자급 비료의 시비량을 증가하는 문제였다. 민청 단체는 8 정보의 청년 시험 포전에 확보할 자급 비료 생산에 떨쳐 나섰다. 그래서 살얼음이 낀 찬날에도 파벽토와 개'바닥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하였고 구비 생산에 동원되여 정당 1,200 톤의 자급 비료를 보장해 놓았다.

포전에는 30 센치 두께로 퇴비를 깔고 추경을 진행하고 동시에 10 센치씩 사이를 두고 퇴비, 객토, 때미리, 초목회를 쉬어서 1 메터 20 센치로 기경을 보장하였다. 다음에 린, 카리 비료가 적은 조건을 타산하고 정당 600 키로그람의 화학 비료를 기비로 주었다.

밀 식

깊이 갈고 자급 비료를 많이 시비한 조건에서 평당 주수와 포기당 대수를 어떻게, 얼마나 배치하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토론하였다. 그리하여 얻어진 결론이 평당 주수가 706 주이고 렬수는 15렬식으로 하되 그 주간은 9 센치와 4.5 센치씩 사이를 두게 하였다.

벼의 키는 500조가 168 센치 중생 은방주와 룡성 1호는 각각 140 센치씩 자랐다. 한 대에 달린 알수는 500조가 500 알, 그 밖에 중생 은방주와 룡성 1호는 130~140 알씩 달렸고 한 이삭의 길이는 평균 25센치로 자랐다.

그리하여 15렬식 방법으로 평당 706 주를 심은 중생 은방주에서는 평당 17만 236 알이 달렸고 500조에서는 19만 9,200 알이 달렸다. 이것은 지난 해에 비하면 5배 이상이나 더 많은 것으로 된다.

또한 모가 활착한 다음부터는 벼의 분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낮이면 물을 2 센치 정도로 대주고 오후부터는 7 센치 정도로 물을 대주었다.

비배 관리

5월 7일부터 5월 15일 까지의 기간에 이앙은 끝났다.

모를 옮긴 다음 날부터는 낮에 2센치씩 물을 대고 밤이면 5 센치씩 물을 댔다. 모를 낸지 며칠 만에 활착하고 곁가지가 치기 시작했다.

제초 작업은 일곱 번 하였는데 모를 낸지 1주일 만에 한번 해주고 세번째부터는 갈구리로 곁가지를 갈라주며 흙을 충분히 뒤집어 벼 뿌리가 자유롭게 뻗게 하였다. 7월 29일 경부터는 잡초와 돌피를 뽑는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논판에는 뜻밖에 흰 이삭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기경 당시에 질소, 린, 카리 비료 성분을 잘 배합하느라고 하였지만 이때에 와서 린, 카리 성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였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류안 300 키로그람, 파석 200 키로그람, 석회 질소 100 키로그람을 배합하여 추비로 주었다.

그후 벼의 생육이 왕성하여 지자 고랑 사이가 좁아져서 통풍에 지장을 줄 위험성이 있었다. 게다가 500조는 키가 크고 자체 중량때문에 너머질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1.5 센치씩 사이를 두고 말뚝을 박아 새끼줄을 치고 점점 우로 올려매고 한 줄씩 당기면 모두가 통풍이 보장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너머질 우려는 극복되고 통풍은 보장되였다.

새로운 계획

이곳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한결같이 당이 제시한 집약적 농법에 의한 심경, 밀식, 다량 시비를 보장하면 틀림없이 다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추수가 끝나면 그들은 인차 명년도 영농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그들은 명년에 벼 정당 50 톤 이상을 생산할 것을 당 앞에 맹세하고 또 그 젼의 실천에 한결같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의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카리, 린 비료가 부족한 조건에서 부식 퇴비를 결정적으로 증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품종은 피해가 적고 토질에 알맞고 수확고가 높은 중생 은방주를 기본으로 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명년에는 로력도 절약할 수 있고 이앙도 쉽게 할 수 있는 수직파를 시험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본사 기자 윤 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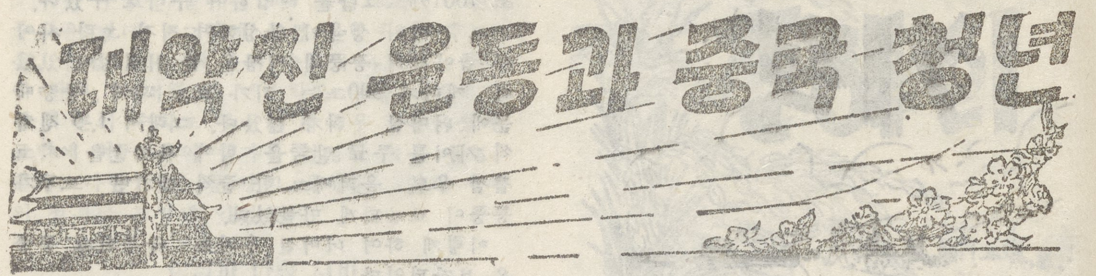








대약진 운동과 중국 청년



형제적 중국 인민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자기의 조국—중화 인민 공화국을 동방에 거연히 솟은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중국 인민들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에는 중국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과 로력들이 깃들어 있다.

위대한 새 목표를 향하여

작년에 시작된 중국 인민과 청년들의 대약진 운동은 중국의 공업을 아직 인류 력사에서 전례가 없는 급격한 속도로 장성시켰다. 1958년 한 해 동안에 공업 총 생산량에 있어서 전년에 비하여 66%로 장성시켰고 금년도 상반년에는 작년도 상반년에 비하여 또다시 65%로 장성시켰다.

대약진 운동에 있어서 중국 청년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1958년에 중국 청년 로동자들은 기술 혁신을 위한 1천 만 건의 창의 고안을 내놓음으로써 국가의 생산 과제를 초과 완수하는 데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북경의 젊은 로동자들은 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계획 외에 더 생산할 결의를 다지고 이에 호응할 것을 전국 청년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운동은 기술 혁신을 통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동시에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증산 경쟁이였다. 불과 한 달 이내에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이 호소에 호응하였다. 특히 강철 생산에서 약진을 이룩하기 위한 운동은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는 바 작년에 전국에서 3천 6백만 명의 청년들이 이에 참가하여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안산과 상해의 청년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평로들에서 평로 내 용적 1 립방메터 당 강철을 1일 8.98 톤 내지 11.8 톤, 지어는 15 톤까지 생산하였다.

중국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 속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가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소유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몫을 한 사람이 대행함으로써 로력을 절약하고 사업 능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리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데 북경 제 3 건축 공사 제 5대에서는 부족되는 기능공을 해결하는 창조적 투쟁인 《다기능 운동》을 적극 진행한 결과 3백 여 명의 로동자들 중 80% 이상이 네 가지 내지 아홉 가지의 건축 기술을 소유하게 되였다.

전국의 생산 및 건설 부문 청년 로동자들 중 근 3분의 1이 기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개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였다. 중국의 각 탄전들에서는 굴진을 채탄에 선행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표 탄광 대전 2갱에서 작업하는 위영완 청년 굴진 브리가다원들은 1958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 없이 계획을 초과하여 《붉은 기》의 영예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많은 도시의 청년 로동자들 사이에는 다른 로동자들로 하여금 계획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방조를 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심양 변압기 공장 직장에서는 54 명의 우수한 청년 로동자들이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작업반을 방조하기 위하여 한 개 작업반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단시일 내에 100 여 명의 로동자를 방조하여 그들을 선진 로동자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렸으며 전면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을 크게 제고시켰다.

중국 공산당 제 8기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는 중국 인민과 청년들의 대약진 운동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제 2차 5개년 계획을 3년 간에 앞당겨 완수하며 《15 개년 내에 주요 공업 제품 생산에서 영국을 따라 잡자》라는 구호를 약 10년 내에 실현할 것을 호소하였다.

오늘 중국 청년들은 중국 공산당이 호소한 위대한 새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눈부신 대약진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8자 헌법》의 위대한 생활력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중국 농민들과 청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중국의 농업에서는 대전변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인구 1인당 알곡 생산고는 1949 년도에 200 키로그람이였다면 1958 년도에는 385 키로그람으로 증가되였다. 1957년에 중국에서는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여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된 결과 농촌에서는 대비약의 봉화가 올랐으며 대약진의 불길 속에서 인민 공사가 조직되였다.

대약진 속에서의 중국 청년들은 농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위하여 다수확의 기본으로 되는 《8자 헌법》을 더욱더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8자 헌법》은 관개, 수리, 비료, 심경과 토지 개량, 우량 종자, 밀식, 식물 보호와 병충해 방지, 전답 관리, 농기구 개량 등을 의미한다.

1958 년도에 농촌 청년들의 3분의 1이 생산 들격대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인민 공사들에서의 모든 힘든 담면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앞장에 섰다. 청년들은 1958 년도에 도합 2백만 헥터의 시험 포전을 마련하였으며 암석이 많은 산들과 메마른 땅 및 사막을 록화하였으며 2백 70 만 개의 언제를 완성하였다.

이리하여 《넓은 면적의 다수확 포전》 운동을 계속 강화하면서 심경과 집약적 경작을 실시하여 《작은 면적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한 운동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8자 헌법》을 관철하기 위한 중국 청년들의 투쟁은 지난 8월에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 8기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길에서 더욱 고조되여 가고 있다. 전원 회의는 금년도 알곡 생산을 지난 년간에 비하여 10% 증가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중국 청년들은 전체 농민들과 함께 이 전원 회의의 호소를 실천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는바 《한 무(한 헥터의 15분의 1)에서 알곡은 500 키로그람, 저류는 5 톤, 목화는 50 키로그람 수확》하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남부 중국 농민들과 청년들은 늦벼 다수확을 위하여 인민 공사, 생산대들 간에 올벼 수확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하고 있다. 광서 동족 자치구 320 개의 인민 공사들에서는 모범 인민 공사가 되기 위한 자체의 목표를 내세우고 추파 면적을 확장하고 헥터 당 수확고를 높이며 농업 및 부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공사 사원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 등을 결의하여 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농민들과 청년들의 다수확의 비결인 《8자 헌법》은 그의 생활력을 더욱더 빛내이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금년도 농산물 수확에서 제기한 당의 호소를 반드시 관철하며 농촌을 보다 행복한 락원으로 전변시킬 것이다.

× ×

형제적 중국 인민과 청년들이 대약진 운동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은 《고도로 열의를 높이며 앞잡 서기에 힘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중국 공산당의 총로선의 정당성을 산 현실로 생동하게 실증하여 주는 것으로 된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이나 앞당겨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 인민의 천리마 운동과 중국 인민의 대약진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두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의 강력한 시위로 된다. 조중 인민과 청년들의 이와 같은 드높은 기세는 원수들의 어떠한 발악적 책동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처럼 내닫는 량국 인민과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 막지 못함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본사 기자 하 만 춘





친애하는 독자들! 나는 오래간만에 독자들과 만난다. 남조선에 《60년래의 대 풍수해》가 휩쓸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부랴부랴 남반부로 달려갔다. 나는 남해의 섬—거제도에 내렸다. 촌락은 모래와 자갈로 묻히였고 사람들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이 어데로 피신했을가 하고 생각하며 나는 바다'가의 촌락을 향해 걷다가 한 녀인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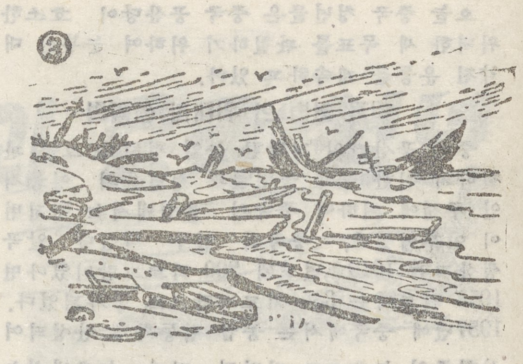
《저 산 밑 마을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살아 나지 못하였습니다. 살아났단들 무엇 하겠어요! 쓰러져 가던 오막살이와 목숨을 걸고 있던 쪽배들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는데…》 녀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제도만 하여도 700 여 동의 가옥과 주민들의 유일한 생활 도구인 어선은 거의 9할이나 파괴 류실되였다.

나는 한 부락이 몽땅 류실된 경북 안강읍에 가보았다. 거기에선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참상들이 벌러지고 있었다. 사상자 45 명과 리재민 1만 5천을 헤아리는 막심한 피해를 입은 안강읍은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참상을 보이고 있었다. 초라한 초가들마저 몽땅 떠내려 보낸 이 지방 주민들은 폐허 우에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을 짓고 있었다.

나는 밀양 남천강'둑에서 어느 신문 기자를 만나 그와 동행하였다. 남천강변 일대에 새로 생긴 백사장엔 아들 딸과 부모를 잃은 2만 3천 명의 리재민들이 공포와 피로와 굶주림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에겐 통곡할 기력 조차 없었다. 기자는 한숨을 짓더니 말을 이었다.

《이번 폭풍우에 집과 가재 도구를 잃고 알몸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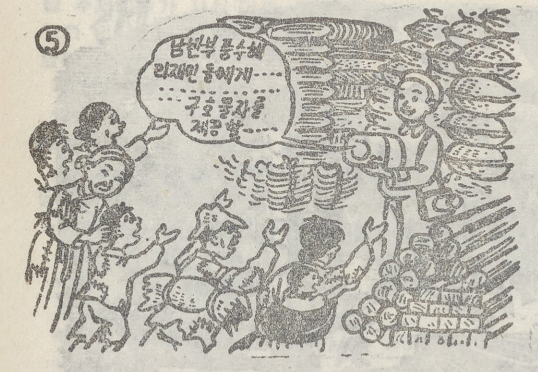
리재민은 78만 8천 여 명이나 되고 물질적 피해액은 772억 5천 만 환에 달합니다.》 어민들의 피해는 막대하였다. 경상 남북도 해안 일대에서는 태풍과 함께 산'더미 같은 해일이 밀려 들어 방파제와 정박 중인 선박들을 마구 부시고 4만 3천 여 동의 어 민들의 가옥을 단숨에 삼켜 버렸다.

이번 폭풍우에 1만 5천 여척의 대소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는바 이 피해액만 하여도 66억 8천 어만 환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다는 격으로 리재민들 속에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었다. 내가 충청남도 장항읍에 가니 수십명의 장티프스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되였었다. 남조선 일대에는 1천 8백 여 명의 뇌염 환자들이 있으며 근 500 명은 벌써 사망하였다. 백사장과 진흙 바닥 우에 쓰러져 있는 리재민들을 각종 질병이 위협하고 있는데 아무런 구호 대책이 없다.

《일본놈들은 하는 시늉이나 냈지만 리 승만이는 치산 치수와 관개 공사를 한평도 안하고 오히려 마사 버렸다오. 그래 이 모양이 아닙니까! 하루만 비가 와도 홍수요, 이틀만 가물어도 논판이 거북등처럼 터지니 비가 와도 걱정, 안와도 걱정입니다. 아마 황소가 오줌만 누어도 강이 범람할게오다…》한 농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두 승만이는 〈하늘의 조화〉니 할 수 없다질 않습니까! 한 하늘 아래 지리도 같고 이번 비와 바람도 같이 맞았건만 북조선은 영원히 수해와 가물을 모르게 되어 만고 풍년이 들었다는데… 아아, 누가 우릴 구해 주겠습니까?》 하고 로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나는 로케트에 설치된 대형 라디오를 틀어 놓았다. 평양 방송은 때마침 남조선 리재민들을 구제할 데 관한 내각 결정 60호를 보도하고 있었다. 방송이 시작되자 공포와 주림에 시달려 죽은듯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보도를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화국 정부에게 감사하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한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두 생전 처음 이밥을 먹을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소원이던 신발도 신어 보게 됐다》하고 말하였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맑은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이때 한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저기 지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돼지 같이 생긴 지주놈은 금년 농사는 바라볼게 없으니 봄에 꿔준 빚이나 받자고 물 속에서 건진 가장집물이라도 빼앗아 갈 작정인 것이다. 그때 한 떼의 《가마귀》들이 또 나타났는데 군청에서 온 그 놈들은 목메인 울음 소리와 락망의 한숨에 잠겨 있는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격분하였다. 한 젊은이는 《엣다 이거나 가져가라, 내게 있는건 이것 뿐이니…》하고 헌 짚신짝을 군 서기 앞에 내던졌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 보다 일어나 싸웁시다. 작년 가을에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쌀이 아직 읍에 쌓여 있고 저 지주놈의 고'간에도 몇 백 석이 있으니 털어 냅시다.》중년의 농민이 주먹을 휘두르며 웨쳤다. 《그렇습니다! 북조선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구호 물자도 가만히 앉아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싸웁시다. 미제를 몰아내고 리 승만이놈을





때려부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 소리높이 대오를 짓고 앞으로 나아 갔다.

나는 판문점으로 갔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09차 회의가 방금 시작되였는데 우리 측 수석 위원은 남반부 리재민들을 구제할 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 조치를 실현, 협조 보장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우리 측 수석 위원의 첫 발언이 끝날 때 까지 남조선 신문 기자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미국놈들은 우리 측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기자들만 늦게 보냈던 것이다. 우리측의 제기에 땀만 뻘뻘 흘리던 미국 측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성격을 띤 문제》이니 《해당 당국의 동의가 없이는 토의할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내놓으며 파렴치하게 련거퍼 휴회만 제기하였다. 남조선 기자들은 도착했건만 그들은 말 한마디 못하였다. 나는 밀양에서 낯을 익힌 남조선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혈육을 같이 한 남북 조선 형제끼리 돕고 도와 주려는데 미국 측은 그걸 반대하오》. 그 기자는 말없이 옆의 놈을 눈질하며 대답을 피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놈은 사복을 입은 특무였다. 내가 한켠 구석에 있을 때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하며 기자는 재빨리 나에게 말하였다. 《남조선 리재민들은 공화국 정부의 구호 물자가 하루 속히 도착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소.》

글, 박 승수

그림, 남 현주





리 기 영

《누구를 찾으시나요?》

《곡산에서 온 리 춘식이를 만나러 왔수다. 그애가 바로 내 아들이외다》

《아— 그러십니까, 아마 점심 식사를 하겠는데! 저를 따라 오십시오.》

박 인옥은 길을 앞서며 친절한 태도로 로인을 인도하였다.

《마침 잘 만났수다……이거……매우 고맙수다—》

춘식의 어머니는 박 인옥에게 연신 치하를 하며 여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 로인은 아들의 몸꼴이 어떠한지 몰라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우리 애가 잘 있는지요?…》

《네. 건강합니다.》

《그애가 몸이 깨끗지 못하다는 편지를 했습디다.》

《그래서 아드님을 만나 보려 오시는 길이군요》

박 인옥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로파를 돌아보니

《네 우리 춘식인 어데 객지에 나다녀 보았나요. 이번이 처음이거던요.》

《잘 있으니 아무 념려마십시요.》

그들은 식당으로 곧장 갔다.

넓은 식당 안에는 긴 식탁을 량천으로 놓았는데 씩씩한 청년들이 한 줄에 수십명씩 네 줄로 앉아서 근감하게 밥을 먹는다. 박 인옥은 들어가는 길로 사방을 둘레둘레 살피다가

《춘식 동무! 어머님이 오셨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데요?》

춘식이는 중가운데서 밥을 먹고 있다가 얼른 숟가락을 놓으며 벌떡 일어나서 쫓아 나온다. 그때 춘식의 어머니는 박 인옥의 뒤를 따라 들어 와서 우선 대원들이 먹는 식사를 들여다 보고 놀래였다.

잡곡이 섞이지 않은 쌀밥에다가 돼지 고기'국과 콩자반, 삶은 계란, 무 짠지를 곁들인 한 접시의 반찬을 따로 놓았다. 그는 이렇게 잘 먹일 줄은 정말 몰랐다. 자기는 그 아들을 귀엽다고 하였지만 언제 이런 음식을 한 번이나 먹어 보았던가? 그는 감격의 눈물이 눈'귀를 적시였다.

《어머니! 뭐하러 오셨어요?》

춘식이는 그 어머니 앞으로 닥아오자 이렇게 첫마디를 불숙 꺼내였다.

《그러기에 말이다. 네가 이렇게 잘 있는 줄 알었으면 아니 왔어도 좋을 번했다.》

《근데 나중 편지를 못보셨소?》

《나중 편지? 아니 네 편지는 한 장 밖에 아니 왔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하여 그 아들의 얼굴을 뻔히 마주본다.

《그럼 안녕히 쉬십시요.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박 인옥이가 식당 밖으로 나오며 로인에게 인사를 하니

《네, 나때매 참 많은 수구를 하셨수다. 편안히 계시오, 아이구 참!》

춘식이 어머니는 박 인옥에게 불안한 태도로 인사를 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청년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의미 있는 미소를 띄웠다.

춘식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합숙소로 가는 길에 말을 계속한다.

《두번째 편지에는 어머니를 오시지 말라구 써 보냈는데요》

《난 어제 아침에 일찍 떠났는데 그 편지는 못 받아 보았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옆 얼굴을 흘이겨 보며 눈치를 살피다가

《그래 지금은 몸이 어떠냐? 무슨 병을 앓었기에……》

《괜찮아요——건 뭐입니까? 인주세요!》

춘식이는 어머니에게서 보따리를 받으려 하는데

《아니 무겁지 않다. 그만 둬라!》

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두리번하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자 그는 아들이 다시 묻는 바람에 주저하다가 사실 대로 가져온 것을 말하였다. 어느덧 합숙소에 이르자 그들은 빈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방이 뜨뜻하구나!》

어머니는 방'바닥을 두손으로 만져본다. 노전을 깔은 방속에서는 훈훈한 온기가 떠돌았다.

《석탄을 땐답니다—떡을건 뭘하러 해오세요. 동무들이 알면 창피하라구요.》

《누가 그런 줄 알았나…… 몸이 성치 않다기에 입맛을 잃었는가 해서 엿과 떡을 조금 해왔는데!》

《어머니 도루 가지고 가시우. 그걸 어따 내놓겠소· 동무들이 보면 모두 웃을걸!》

《하지만 죄될게야 없지 않느냐? 어머니가 맘 먹고 해 온건데—》

《어째 죄가 아니 되겠소. 저부터도 죄를 졌는데요……》

춘식이는 별안간 한숨을 내쉰다.

《아니 네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응……》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래며 당황해 한다. 춘식이는 침묵 속에서 자기 혐오를 느끼다가

《난 어머니도 속였소— 꾀병을 앓다가 그런 편지를 한거에요.》

《아니 아프지도 않은데 어째 꾀병을 했단 말이냐?》

어머니는 종시 아들의 말이 미심 적게 들리였다.

《흥! 지금 같으면 누가 꾀병을 했겠어요, 그때 처음에 와서는 모든 것이 스산스러운데 언땅을 파라는게 별이 나서 꾀병을 했었지요…… 그런데 대대 지도부에서 어떻게 한줄 아세요? 간부 어른들이 번차례로 문병을 와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아까 그 위생 지도원 녀동무는 손수 밥을 날라다 주고 약을 갖다 주며 간호를 해주는데…… 목석(木石)이 아닌 담에야 어떻게 장창 꾀병을 앓겠소. 그래 바로 사흘 전에 정치 부대대장 동지가 세번째 찾아 오셨을 때 나는 그제서야 이실 직고를 하고 그 동안 꾀병한 것을 사과하였답니다. 그날 낮부터 일을 나가서 오늘 사흘채 작업을 하면서 인제 제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다른 동무들한테도 뒤지지 않게 일을 잘 할 결심으로 나섰는데 어머니는 떡을 해가지고 찾아 오셨으니…… 그 속을 알면 동무들이 모두 웃을게 아니에요.》

하고 춘식이는 한손으로 머리를 툭툭 긁는다.

《난 네가 꾀병을 앓은 줄은 모르고 옛날 〈보국대〉로 간 것처럼 너를 생각했더니만 오히려 집에서 보다도 더 잘 먹고 뜨뜻한 방에서 지내는 구나. 그러니 인젠 에미가 마음을 놓겠다.》

어머니는 말을 그치자 안도의 숨을 후 내쉬인다.

《제가 꾀병을 한게 첫째 잘못이였지만 어머니도 〈보국대〉를 생각하는건 잘못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째 어머니는 옛날 왜정 때의 〈보국대〉를 생각하시나요? 건 망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늙은 내야 세상 형편을 어데 잘 아느냐? 왜정 때에 너무도 고생을 해서…… 네 형이 〈보국대〉로 일본까지 끌려가서 숫한 고생을 하다가 해방을 만나서야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미국놈들이 달려 들었을 때 형을 기어코 원수놈들의 손에 원통한 죽음을 당하였으니……나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원통하고 서러워서…… 어제'밤에도 그놈들이 네 형을 잡아가는 꿈을 꾸다가 깨였다……아이구……참!》

어머니는 큰아들을 생각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는 것이였다.

《어머니! 형님의 원수는 제가 갚겠어요! 그 원수를 갚는 길은 이 청년 건설장에서 많이 배우고 일을 잘 하여 이담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여기로 왔을 때 두메산'골에 살던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그랬었지만 인제는 제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찾아 들었으니 어머니는 저를 위하여 다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오직 집안 일이나 잘 돌보아 주십시요…》

춘식이는 진정에서 우러 나오는 말로 외로운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이였다.

《오냐! 네가 그렇게만 되여 준다면 이 에미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여기가 그런 줄 모르고 나도 죄송한 생각을 하였구나! 집안 일이야 네가 없드라도 네 형수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 이틀날 춘식이의 어머니는 보따리를 끌으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돌아 갔다. 하긴 그가 대대 간부들을 만나보고 치하를 하고 싶었으나 춘식이가 만류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그만 두었다.

어머니가 다녀간 후에 춘식이는 더욱 일을 잘 하고 건실한 태도로 남에게 모범을 보이였다. 그것은 동무들과 지도 간부들에게 날로 신임을 받게 하였다.

춘식이가 농업 대학을 희망한 것은 빈말이 아니였다. 그는 2계단 공사를 끝마치고 나서는 정말로 농업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기의 고향을 현대적 문화 농촌으로 만들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11. 그들의 부부

위생 지도원 박 인옥은 자기의 직책상 조 옥희 영웅 돌격대에는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원들의 보건 사업을 위하여 각처의 현장으로 뛰어 다니며 환자의 유무를 검열하고 발병자에 대하여는 친절한 치료와 간호를 하여 주었다.

그가 현장에 나갈 때는 우선 대원들을 도와서 그들과 같이 힘든 일을 하였다. 그리다가 휴식 시간이 돌아 올 때에야 그는 약가방을 끌렀다. 그렇게 하니 대원들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피차간 자기의 사업을 보장할 수 있었다.

위생 지도원이 현장에 나갈 때에는 약 가방만 휴대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끓인 물을 큰 주전자에 넣어 가지고 가서 대원들이 갈증을 면하게 해주었다. 대원들은 모두 그의 열성에 감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년 건설자들만 돌보지는 않았다. 부락의 위생 사업을 위해서도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과 빨래를 자주하여 이를 퇴치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녀맹》을 통하여서는 위생 문화 사업을 선전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그것은 부락의 미화 사업이 날로 개선되여 가게 하였다. 다른 녀성 대원들과 같이 그는 남자 동무들의 배낭을 뒤져서 벗은 내의와 양말짝을 빨래 할

아 주기도 하였다.

인옥은 자기가 현장 작업을 못하느니만큼 이런 일, 저런 일로 대원들을 도와 주고 부락의 위생 사업까지 돌보기에 밤에도 잠잘 틈이 없이 바쁘게 날뛰였다.

이와 같이 그가 남달리 분발하게 된 것은 제 2 대대에 있는 남편이 기탄교 다리를 놓는 공사에서 붉은 전사 돌격 대장의 책임을 지고 영웅적으로 투쟁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오늘 천리마 시대에 살면서 남편에게 뒤저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수치다. 비록 자기는 남편처럼 힘찬 일을 못할 망정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에 그는 자기가 책임 맡은 위생 지도 사업 이외에도 어떤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였으며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장 작업도 자진하여 참가하군 하였다.

사실 그의 남편 방 상문은 제 2 대대 제 1 중대에서 붉은 전사 돌격대원들과 함께 대중적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다.

같은 부재 생산의 경우였건만 그가 속한 제 1 중대에서는 기탄교의 대철교에 소용되는 엄청난 브로크를 질적 량적으로 겨울 동안에 완전히 만들지 않았던가! 물론 그들도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에 봉착하였으며 그때마다 보수주의자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였다. 그것은 중대의 일부 지도 일'군들과 대원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트레스트에서 나온 부재 생산 부장까지 부재를 찌자면 적어도 무연탄 아궁이에 후양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면서 석탄과 후양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고집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부재 생산을 책임 맡은 붉은 전사 돌격대장 방 상문과 돌격대원들은 그들의 의견을 반대해 투쟁하였다.

대장 방 상문은 길이 5 메터와 너비 2.3메터 높이 1.2 메터의 토굴형 온돌을 만들고 조선 가마 솥을 걸어서 불을 때게 하고는 토굴 온돌에서 증기가 빠지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 밀폐시키는 방법으로 양생로를 만들 것을 창안해 내였다. 당 단체와 민청에서는 그의 창안을 지지하고 협조하였다.

그는 그대로 양생로를 만들고 돌격대원들은 산에 가서 싸리 나무를 해왔다. 부재를 만드는 첫 시험을 시작하였다.

새로 지은 부재 양생실에 목욕탕 처럼 증기가 꽉 들어 찼다. 우선 그들은 한 두 개만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그전에 만들었던 부로크 두 개를 시험하였다. 하나는 자갈과 모래를 그대로 쓴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래와 자갈을 녹여서 만든 것이다…… 만일 이 두 개가 다 실패된다면 방 상문은 그만 손을 들어야 한다—그날'밤에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꼽박 날을 새웠다.

그런데 한 개를 꺼내어 땅에 굴려보니 중둥이 쩍 갈라진다. 한데 다른 한 개는 끄떡 없다. 그것은 돌맹이 처럼 아주 딴딴하였다. 알고 보니 나중 것은 재료를 녹여서 만든 것이였다.

옳다…… 성공이다! 재료를 녹여서 만들면 된다. 새날 아침부터 돌격대원들은 활기가 나서 부재를 만드는데 신이 났다. 그들은 새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하였다.

붉은 전사 돌격대 앞에는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네
10만 산아 비켜라— 철'길이 뻗친다.
례성강 칼바람도 무섭지 않다네—
에헤야 에헤야 부재가 나온다네……

그들은 24 시간 증기를 올린 결과 소형 부재 106 개를 단번에 양생시켰다. 한데도 강도는 170 마르까를 훌륭히 보장하였다.

시험에 성공한 돌격대원들은 판자 대신 만들어낸 부재를 리용하였는데 두 개의 로를 만들 널판자를 가지고 조선 가마로 여섯 개의 증기 양생로를 설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증기 양생을 대규모로 시작하였다. 하나 그들은 이로써 만족하지 않았다.

방 상문은 증기 양생 시간을 단축시킬 데 대하여 또다시 연구하였다. 그는 증기 양생을 하는 데는 불때는 것을 잘 가늠하면 양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방법을 궁리해 내였다.

그것은 처음 4시간은 열을 점점 높이어 70도~80도에 이르게 하고 6시간 동안은 계속 열을 높여서 최고의 화력으로 물을 끓인다. 그렇게 증기를 올리다가 다음 시간은 점차 화력을 약하게——마지막 두 시간은 아주 저열로 증기를 식히는 방법이였다.

이렇게 그들은 16 시간만에 증기 양생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부재 생산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기준량을 3배 이상 초과 실행게 하며 마침내 그들은 3월 5일까지 1,339 립방메터를 훌륭히 만들어 내였다.

이와 같이 제 2 대대 붉은 전사 돌격대에서는 방 상문을 중심으로 길이 260 메터, 높이 17.5 메터의 기탄강 대철교를 건설하는 데 소용되는 부재 생산을 전부 보장하였다.

그들의 집체적 지혜와 창조적 로력 투쟁은 새 기준량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박 인옥은 남편의 이런 투쟁 모습을 들을 때마다 마음 속으로 기쁨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곳으로 탄원하여 오던 지나간 일이 문득 회상되였다.

작년 12월 초순이였다. 지하리—평산간 철도 부설 공사에 참가할 청년 건설자들의 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의 남편 방 상문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동무들에게서 들은 인옥은 그길로 기관구 민청 위원장을 찾아 가서 알아 보았다.

《위원장 동지! 상문 동무가 청년 철도 건설장에 탄원했다죠?》

《그랬소.》

이말을 들은 인옥은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똑바로 말해 주세요. 당신이 건설장에 나간다면 나두 탄원하겠세요.》

《탄원하지 않았다는 데 어찌 자꾸만 성화요.》

《다른 동무들의 말을 들으면 당신도 간다니까 말이지 뭐.》

《왜 내가 건설장에 갈가봐 겁이 나서 그러오?》

《겁은 무슨 겁이여요. 나를 속이고 혼자만 갈라고 하니까 그러지……》

《당신이 나와 같이 건설장에 나가서 일을 할 용기가 있소?》



《있지 않구요. 당신 혼자만 가시면 나는 어쩌라구요. 나두 갈 테요.》

《공연히 같이 갔다가 남까지 망신을 시킬려구!》

《아이구 참, 그래서 몰래 가려구 속였수?》

《아니면 뭐야.》

《그런 념련 마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박 인옥은 초급당 위원장과 기관 구장을 찾아가서 남편과 같이 보내 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더니만 그들은 허락을 하였다. 그때 박 인옥은 얼마나 좋았던지 모른다.

그리하여 내외가 같이 떠나게 되였는데 환송을 받을 때 그는 수많은 군중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이들은 부부가 함께 간다지요.》

《그렇대여.》

《참 좋겠네.》

군중들은 특별히 그들 부부에게 꽃다발을 더 많이 안겨 주었다. 그것은 일행 중에 오직 그들만이 부부가 동행한다는 이채를 띄였기 때문이다.

그날 인옥은 약혼을 하였을 때나 결혼식을 하던 때에도 그처럼 흥분과 감격을 느껴 보지 못하였다. 정말 그것은 새로 결혼을 하는 것 같은 애틋한 충동을 받게끔 하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로 뽑히여 건설장에 나간다는 긍지감과 수백 수천 군중의 열렬한 환송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대렬의 선두에 내세워서 꽃다발을 받게 해준 그 영예감을 정말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 부처를 부러워하며 칭찬하였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인옥은 부부간의 애정이 새삼스레 깊어 짐을 느끼였다.

발차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게 되자 수백명의 환송 군중과 청년 건설자들 수백명은 서로 어울려서 군무를 추었다. 그때 인옥은 남편과 같이 춤을 추었다. 군중 속에서 남편과 같이 무도를 해 보기도 그날 처음이였다.

그는 결혼을 한지 몇해가 지났건만 그때처럼 기쁨을 느껴 본 적은 없다. 남녀 수백명의 쌍쌍이 료량한 음악에 맞추어서 무도를 하는 멋진 광경은 마치 자기의 부부를 축복하는 환영회 처럼 생각키웠다.——(이런 생각이 너무 지나친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가 혼례식에 나온 신부와도 같은 긍지감을 갖게 하였으며 기차가 떠날 때에 그에게 여러 사람들이 꽃다발을 또다시 안겨주는 것은 마치 신혼 려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에게 열렬한 환송을 해주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함흥에서 평산까지 올 때에도 그들은 기차의 한차'간에 타고 왔다. 큰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그들은 군중의 환송과 꽃다발을 받았다. 정말 그것은 신혼 려행을 하는 것 보다도 더 기뻤다. 건설장을 향하여 달리는 렬차 안에서 남편과 더불어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창밖에 전개되는 자연의 경치를 내다 보는 그들은 얼마나 행복하였으며 또한 랑만적이였던가! 그들은 마치 영화의 남녀 주인공 같기도 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인옥은 일을 더 잘 하여야 겠다는 책임감이 강해졌다. 남편의 말마따나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느냐고——

일을 잘 해야만 1계단 공사를 끝마치고 제 2계단 건설장으로 넘어 갈때 여기로 올적 보다도 더 기쁘게 남편과 같이 갈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한 철'길 우로 기차를 타고 가며 또 한번 때겨야할 것 아닌가——

과연 진정한 행복은 창조적 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옥은 다시금 절실히 깨달았다.

날이 감에 따라서 철도 건설 공사는 진척되여 간다. 각 대대에로 무수한 대형 트럭이 꼬리를 이어서 물자를 운반하여 왔다. 군데 군데에 레일과 침목이 쌓여 있다. 평지의 로반에서는 벌써부터 장철을 칡기 시작하였다.

산 대랑을 까내여 계곡을 메꾸고 턴넬을 뚫고 5만 산 10 만 산을 들어 내고 7형제 바위를 발파하고 남대천, 기탄강, 침교천에다 큰 철교를 가설하고 태을천 계곡에 고성토를 하는 등——연도 150리 기리에는 5개 대대 청년 건설자들과 수천명의 응원대가 죽늘어 서서 영웅적 건설 투쟁을 밤낮 없이 전개하고 있다. 어데서나 작업장에서는 청년 남녀들의 씩씩한 기상이 보이였다. 제가끔 붉은 수첩을 가지고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붉은 전사로 단련되여 가는 청년 건설자들은 어떤 난관과 애로에 부닥치드라도 그것을 용감히 돌파하고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과 같이 달리고 있다.

12. 동지 애

제 3 대대에는 3월에도 각처에서 응원대가 수백명이 모여왔다. 그중에는 평양을 위시한 각 대학생들과 각처에서 온 고중 학생들과 또한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와 평양 의학 대학에서도 수십명의 대학생이 왔다.

때마침 그들이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

했다. 그래서 새로 온 대학생들이 비를 맞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한데 그들에게는 우비가 없었다.

3지연 돌격대원 김 춘화는 대원들에게 호소하여 나섰다. 그의 호소 내용은 자기들의 우비를 응원대로 온 대학생들에게 빌려 주자는 것이 였다.

돌격대장을 비롯한 전 대원은 그의 발기에 만족한 마음으로 호응하였다. 그들은 즉시 자기의 우비를 제가끔 가지고 가서 의과 대학생들에게 옷을 바꿔 입으라고 권하였다. 대학생들은 처음에 그것을 굳이 사양하였다.

그때 김 춘화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벌써 몇달 전에 와서 인제는 로동에 단련이 되였지만 동무들은 오늘 처음 오는 길인데 비까지 맞고 험한 일을 하다가는 병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지 말고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시요.》

그 동안에 김 춘화는 이처럼 건실한 인간으로 장성되였다.

그의 말에 뒤'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돌격대원으로 작업하는 동안에 많이 단련되여서 인제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처음 오신 동무들의 건강을 념려해서 조고만 뜻이나마 표하자는 것인데 만일 동무들이 우비를 안받으신다면 우리는 매우 섭섭히 생각하겠습니다.》

3지연 돌격대장 정 기룡이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의과 대학생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커다란 충동을 받았다. 대학생들은 지식으로나 무엇으로나 이들 보다 월등 높다고 자인하였다. 그런데 청년 건설자들의 이렇듯 진실한 생활 태도를 목격한 그들은 도리여 자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동무들의 뜨거운 제의를 접수 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동무들 앞에 부끄럼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대학 공부를 다시 해야 겠다고 동무들 앞에서 새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동무들이 작업하는 청년 철도 건설장이야 말로 공산주의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미력 하나마 우리들은 동무들의 작업을 도와 주는 한편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돌아 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키가 큰 청년은 침착한 태도로 이와 같이 답사하였다.

《천만의 말씀을—— 우리들이 동무들 한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지요.》

대학생들은 우비로 바꿔 입고 성토 작업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나이가 어린 한 동무가 찬비를 맞고 일을 하다가 배탈이 나서 앓게 되였다. 할 수 없이 그는 숙소로 돌아와 눕게 되였는 데 그 방에는 며칠 전부터 앓는 대원 한 동무가 아래'목에 누어 있었다.

그는 새 환자가—— 바로 어제 응원대로 온 평양 의과 대학생인 줄을 눈치 채자 자리를 비켜 주며 아래'목에 와 누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의과 대학생은 굳이 그것을 사양하였다.

《나는 어적 아래'목에 누워 있었고 병도 그만하지만 동무는 추위에 랭을 만나서 배탈이 난 것 같으니 뜨뜻한 데서 조리를 잘 할 필요가 있소. 어서 이리로 내려 오시요》

《아니 내 병은 그리 대단치 않으니 념려 말고 동무가 더운 데서 조섭을 잘 하시오. 병이 좀 낫다고 실섭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내려 오시오.》

《아닙니다. 그냥 누워 계시오.》

그들은 서로 아래목을 권하며 이렇게 말하였으나 어느 편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아서 종당은 아래'목을 비워 놓고 있었다.

그것은 먼저 누워 있었던 대원이나 새로 들어온 대학생이나 피차간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아래'목을 양보하고 싶었던 까닭이다.

저녁때, 휴식 시간에 제 3 중대장이 그 방에로 들어 와 보니 두 환자가 누웠는데 정작 아래'목은 텅 비워 놓았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였다.

《동무들! 어째 구들목은 비워 놓았소?》

《그런게 아니라…》

하고 대원 환자가 먼저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또 대학생 환자가

《그런게 아니라…》

하고 자기의 심정을 변명하는 것이였다.

《하하 참! 동무들의 생각은 둘이 다 정당하오. 그러나 대학생 동무는 어제 처음 와서 찬비를 맞고 일하다가 랭을 만나서 병이 났으니 만큼 몸을 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오. 동무는 의학을 연구하느니 만큼 그점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알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학생 동무가 아래'목에 누으시오.》

중대장이 이렇게 말을 하자

《거 보시오 내 말이 옳다니까.》

하고 대원 동무는 만족해서 대학생 동무를 어서 내려 오라고 손'짓을 한다.

《중대장 동지! 지시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의과 대학생은 감격해서 대답하며 따지 못해 아래'목으로 내려가 누웠다.

《좋소! 빨리들 일어 나서 현장에 나오도록 조섭을 잘 하시오. 그래 현장에서 작업 경쟁을 해야지, 아래'목 양보의 경쟁만 해서야 되겠소.》

중대장이 롱담을 섞으며 웃는데 그러나 대학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벽을 안고 돌아 누웠다.… 그는 왠 일인지 눈물이 자꾸만 나왔다.……

이와 같은 대원들의 동지애는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작업 성적에 따라서 중대별, 소대별, 또한 개인별로 매월 상금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신화페로 10 여 원씩 타게 된다.

하나 그들은 그 돈을 자기 혼자만 쓰지 않고 동무들을 위하여 많이 썼다.

그들은 서로 선물을 사주고 환자에게는 위문품을 사다 주며 혹은 대대 문화 사업을 위하여 희사하는 등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보이였다. 이것이야 말로 공산주의적 교양을 받은 새로운 인간의 싹이요, 그의 한 개 전형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집단 생활과 사회적 로동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새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활동한다

위생 개조의 선두에서

함북도 경성군 박충리 농업 협동조합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농촌 위생 월간을 맞으면서 마을의 위생 개조 사업의 선두에 나섰다.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집 주위와 온돌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회벽칠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매 가정 마다 방안의 장판과 도배도 끝내었다.

한편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우물을 위생적으로 개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진료소와 련계를 가지고 조합 내 30 개의 우물 중에서 음료수로 쓸 수 없는 2 개의 우물은 메꾸어 버리고 그 대신 2 개의 우물을 새로이 팠다. 또 한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유휴 자재를 리용하여 10 개의 우물에도 지붕을 만들어 놓았으며 12 개의 박우물도 더 깊이 판 후에 지붕과 뚜껑을 씌움으로써 우물 안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개조하였다. 이러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우물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였으며 공동 드레박도 만들어 놓았고 매 우물 마다에는 민청원들을 우물 관리 책임자로 배치하였다.

한편 리 민청 위원회는 조합 관리 위원회와 토의 밑에 변소를 위생적으로 꾸리는 일도 했다. 민청원들을 인민반 별로 담당시켜서 100 여 개의 변소를 수리케 하고 12 개의 변소를 새로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변소 마다에는 자동식으로 뚜껑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쓰는 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파리를 비롯한 유해 곤충들이 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였다.

이렇게 마을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는 데 앞장에 나선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마을 주변의 도로의 보수와 하수도의 정리도 하는 한편 조합원들 속에서 《가정과 마을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리자!》라는 제목으로 담화와 해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위생 문화 사업이 전 군중적이며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게끔 힘쓰고 있다.

(본사 기자)

위생 계몽 사업으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황해 제철소 당 확대 회의에서 《주택도 알뜰하게 거두고 거리와 공장 구내를 항상 깨끗하게 꾸려 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민청원들의 위생 문화 지식을 높이기 위한 위생 계몽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진료소와 련계 밑에 청년 위생 학교를 조직하고 매주 두 시간씩 위생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에서는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한 당과 정부의 결정, 대중 위생 지식 그리고 갱내 위생과 개별 위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학습하였다.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배운 지식을 곧 실천에 옮겼다.

우리들은 작업 전후 시간을 리용하여 600 메터에 달하는 물도랑을 쳐서 갱내의 물이 잘 흘러 빠지도록 했다. 그리고 작업 장소 마다에 비를 마련해 놓고 떨어지는 탄을 깨끗이 청소하는 기풍을 확립했다. 이리하여 갱내는 황한처럼 깨끗해 졌고 건조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였다.

한편 《청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탄광에서는 검은 옷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되는대로 살려는 일부 청년들의 낡은 사상 관점을 바로 잡는 교양 사업에 주력 했다. 이 사업에서 직관물 선전은 아주 효과적이 였는데 김 특수 동무를 비롯한 직관물 선전 대원들은 개체 위생 사업에 모범적인 동무들을 찬양하는 한편 비위생적인 현상들을 목과 함이 없이 벽보와 속보를 통하여 풍자적인 그림과 유모아로써 폭로 비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은 리발과 면도를 제때에 하며 작업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 입게 되였다. 그리고 항상 옷 차림을 깨끗이 하며 빗, 거울, 수건 등 개인 위생 도구를 가지고 다니게 되였다.

우리는 위생 월간을 맞으면서 인민반별로 담당 구역을 설정하고 호별 방문과 인민반 좌담회를 실시하여 위생 계몽 사업을 강화하며 사택 마을 미화 청소 사업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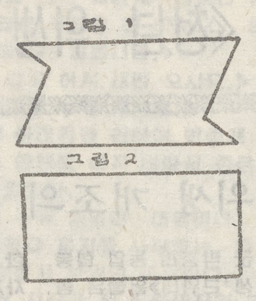
흑령 탄광 흑령갱
《청년 위생 근위대》
대장 박 명흡


위생일


위생일 다음날



청년 오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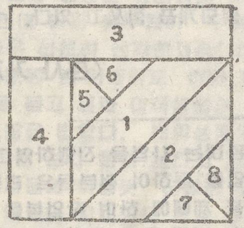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그림 1, 2가 있다. 그림 1을 (임의의 4각형 4개, 3각형 4개) 8개로 쪼개서 적당히 합치면 그림 2와 같은 구형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는가?

제출자 길주 팔프 공장 민 만길

9호 오락 문제의 해답

다음 그림과 같이 1, 2, 3, 4, 5, 6, 7, 8을 조립하면 된다.



9호 현상 문제 해답과 당선자들

1. 박 세영 작 시《산제비》
2. 조 명희 작 단편 소설《락동강》

함북도—— 강 성호
량강도—— 리 영숙
함남도—— 리 인원
황북도—— 김 순익
황남도—— 최 대병
강원도—— 김 경옥
자강도—— 리 영무
평북도—— 조 영철
조선 인민군—— 강 진문
평남도—— 리 중호

만화 모집

편집부는 다음과 같이 독자들로부터 만화를 모집하오니 많이 투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 내용

ㄱ)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와 쏘련을 위시로 한 평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성과들을 찬양한 것.

ㄴ)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 진영의 전쟁 도발 정책과 그 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한 것.

ㄷ)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만행과 남조선 사회의 부패상,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것.

ㄹ)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과 도덕의 잔재들을 예리하게 풍자한 것들.

ㅁ) 기타.

2, 종류

만화, 련재 만화.

3, 보낼 곳

평양시, 민청 출판사《청년 생활》편집부.

4, 기타

ㄱ) 규격은 임의로 하되 반드시 먹으로 그릴 것.

ㄴ) 투고할 때에는 제출자의 주소, 직장, 직위, 성명, 년령 등을 구체적으로 쓸 것.

ㄷ) 발표된 작품은 제출할 수 없음.

ㄹ) 당선 작품에는 상품을 수여하며《청년 생활》,《새세대》,《소년단》,《소년 신문》등에 게재한다.

《청년 생활 편집부》



신간소개

혁명전선에서

《혁명 전선에서》에는 김 일성 원수의 령도 하에 항일 빨찌산
파 지하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한 혁명 투사들이 집필한 회상기
이 수록되여 있다.

보천보 전투에 직접 참가한 한 천추 동지의《불멸의 횃불》
김 일성 원수의 직접 령솔 하에 조직 진행된 보천보 전투에 대한
상이 감명 깊게 서술 되여 있다.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지도자의 한 분인 박 달 동지가 집필한
의 회상》에는 김 일성 원수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국내에서 영웅적
쟁을 전개한 공산주의자들의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품
이야기되고 있다.

정 웅 동지의《그들은 죽지 않았다》에는 1930 년대 초에 혁명
을 진행하다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된 후 놈들의 악착한 고문에도
지 않고 투쟁한 김 일성 원수의 삼촌인 김 형권 동지의 투쟁에
여 씌여 있다. 이 책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영광스러운
명 전통을 학습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되며 혁명 선배들의 불요
의 투쟁 정신과 고결한 품성을 배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